

第103・104・10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 '99.6.29~7.2./8.23~8.27./9.20~9.21.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0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 '99.6.29 ~ 7.2.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999. 6. 통권 제65호

I. 개회식 .....	3
II.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III.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3
IV. 부 록	
1. 의사일정 .....	23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5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 .....	45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53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및지방채발행(안) .....	65
6.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73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75

8.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81

V. 별 책 부 록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29일 (화요일) 14시 00분

## 開會式順(第10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용건)

(14시 00분 개식)

(14시 02분 폐식)

### ● 의사담당 신용건

지금부터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29일 (화요일) 14시 02분

## 議事日程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 및 지방채 발행안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홍재문)
2.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 및 지방채 발행안  
(교육감 제출)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홍재문

의사과장 홍재문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6월 22일 집행청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9-6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 기간중 미원공고와 신흥고 등 2개 기관을 방문하신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을 6월 10일자로 청원군과 집행청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시어 심사후 의결하시겠습니다.

2.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05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5.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14시 07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을 동일국 소관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전국 제일의 선진 충북교육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항상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

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촌 교육발전을 위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17개교의 본교 및 분교장을 폐지하고 9개교의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하복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신설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99년 9월 1일자로 제천 공전초등학교 등 3개교의 본교를 폐지하고, 충주 세성초등학교공이분교장 등 14개교의 분교장을 폐지하며, 충주 수상초등학교 등 9개교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대책으로는 본교폐지 3개교에 4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분교장 폐지되는 14개교에 14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는 본교 폐지 5억원, 분교장 폐지 2억원, 분교장 개편시 2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비를 지원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설학교명 변경으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택지개발지구에 '99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죽천초등학교 교명에 대하여 북

대1동 지역주민이 학교명을 좀더 부르기 좋고 발전적인 교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제시의견이 제일 많고 학문을 떨쳐 빛낸다는 의미가 포함된 "진흥"으로 교명을 선정하여 죽천초등학교 교명을 진흥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안) : 별첨2

( 끝에 실음 )

다음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토올러스케이트를 정책중목으로 육성 및 활성화하고 또한 토올러스케이트 경기트랙 규격이 125m에서 200m 밴크트랙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주교육청의 폐교재산인 (구)현암초등학교에 5,091㎡ 규모의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인 제천 (구)한수중학교와 괴산 (구)오수초등학교의 토지 10만 6,385㎡, 건물 2,302㎡, 공작물 10종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 별첨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

획서(안) 설명자료 : 별첨4

( 끝에 실음 )

다음은 1999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 및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정년 및 명예퇴직 인원은 '99년 2월 말 420명, 8월 말 1,086명, 합계 1,506명으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총소요액은 1,148억원인데 자체재원 확보액 398억 2,200만원과 제1회 추경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0억원 등 798억 2,2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349억 7,8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32억 5,000만원, 농협중앙회로부터 317억 2,800만원을 교육부 승인을 받아 차입하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하는 조건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은 이율이 연리 6.5%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농협중앙회 차입은 이율이 연리 8.25%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며, 농협중앙회 차입 이율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 이율과의 차액 1.75%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 및 지방채 발행안 : 별첨5

( 끝에 실음 )



끝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349억 7,800만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88억 6,518만 1천원에서 469억 5,430만원, 6.3%가 증액된 7,958억 1,9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고교급식시설비 25억 6,900만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16억 3,035만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원비 14억 1천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지원 3억 9,381만원, 학교 교육계획서 우수학교지원 3억 7,350만원, 서원학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 9,125만원, 교장자격연수 경비지원 1억 3,770만원 등 69억 7,78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실업고 직업교육확충비 33억 6,057만원, 결식아동 증식지원비 3억 449만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지원비 1억 285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지원 1억원, 학교운동 경기부지원 1억 1,100만원, 컴퓨터교육 인력지원비 2억 3,792만원, 영어보조원 임용 6천만원,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비 2천만원 등 43억

3,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컴퓨터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 3,020만원,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5억원, '98년도 의료보험료 부담금 미납분 4억 5,075만원,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3억 3천만원, 예산업무 전산화 추진 1억 1천만원, 청주 현암초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 6억 630만원, 청주 주성초 체조경기장 건립 3억 8,300만원, 충주농고 화훼온실 건립 3억 122만원, 영동고등학교 사유지매입 및 교실증축 3억 3,896만원, 영동농·공고 특별교실증축 1억 4,798만원, 주성중학교 강당보수비 2억 5천만원, 제천 의림초 학생화장실 개축 1억 7,736만원, 지방채이자 7억 948만원, '99년 9월 1일 신설교 교단선진화 사업 1억 7,400만원, 괴산중학교 교사 수선비 등 시설비에 11억 267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명예퇴직수당 및 국고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므로 이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4  
(끝에 실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서 : 별책2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기획국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오늘과 모레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내일은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 7월 2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 18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분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마는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먼저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제7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입니다.

순서에 따라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이상일, 이충원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추진상황과 지역별 실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안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있겠으니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없습시다마는 잠시 우리 위원님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우리 강인형

국장님께서서는 마지막까지 저희 교육위원회 1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무를 하신 것으로 봐서 그야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산증인으로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참석하셔서 회의

진행을 도와주신 우리 강인형국장님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준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 별첨3
- ▶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별첨4
- ▶ 19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 별첨5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6

※ 별 책 부 록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별책1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2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7월 2일 (금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교육감 제출)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 의장 조일환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저나 집행청,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심정이 찡찡하실 겁니다.

옛그제 C랜드에 그 차마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23명이라는, 우리 교육계에서 하는 이러한 행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감히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로서 본회의에 앞서서 이 어린 새싹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묵념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여러분과 위원님들 잠시 일어나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묵념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목님)

바로.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좌석이 모두 정돈되었기에 위원님들 다 참석해 주셨고,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일동안에는 소위원회 활동은 물론 이려니와 의안과 관련하여 통·폐합 대상학교를 다녀오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며, 엇그제 그 관련 현장을 모두 다녀오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안건별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으신 후, 심의·의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충원위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바뀐 집행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와 본 위원회에 다시 근무하게 된 두분의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집행청 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영세

금번 7월 1일자로 집행청의 부서가 일부

전보되었기에 그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차례로 인사함)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교육위원회 의사과장으로 있다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홍재문 지방서기관입니다.

그 다음 본청 기획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수 지방서기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있다가 기획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성 지방서기관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내려가 주시죠, 우리 과장님도.

(의사국·과장 단상 앞으로 나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저희 이번에 강인형 국장님이 공로연수, 그리고 우리 홍과장님의 본청 진출로 인해서 안용균 우리 의사과장님이 전입하셨고, 그리고 의사국장으로는 고일영 총무과장님이 영전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국·과장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감)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께서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9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2차에 걸쳐서 의안관련 설명과 질의 및 답변 등의 과정을 마쳤으며, 본 조례안과 관련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 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의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장 개편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교명 변경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몇가지 집행청의 당부드릴 사항은 이미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향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추진보다는 대상 학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상황과 이미 통·폐합된 학교의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년 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여 가급적 학년 개시 전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본 소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

레안 심사보고서 : 별첨7

( 끝에 실음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하여 주시기를 부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11시 10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Pghlr 제4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11시 11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김광수위원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29일과 7월 1일, 2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일동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488억 6,518만 1천원보다 469억 5,430만원이 증액된 7,958억 1,94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가 증가되었으며, 기관별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19억 647만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350억 4,7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566만원, 본청 457억 9,560만 6천원, 지역교육청 73억 2,435만 3천원 증액과 예비비 61억 7,131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349억 7,8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25억 6,900만원, 직업교육 확충에 33억 6,057만 4천원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에 3억 449만 4천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에 7억 3,020만원 1천원, 청주농고 화훼온실 설치에 3억 122만 4천원을, 일반직 명예퇴직 수당으로 3억 3천만원을,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억원, 지방채 이자로 7억 948만 9천원, 기타 각종 시설사업으로, 서원학원 교육환경 개선에 3억 9,125만 9천원, 로울러스케이프장 건립에 6억 630만원, 청주여고 체조경기장 신축에 3억 8,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지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용자 및 지방채 발행, 수수료 수입 등 자체수입 조정 등의 세입재원으로 특별교부 및 국고지원사업비의 계상,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계상, 일부 현안 사업비 계상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청에 몇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분석·검토가 요구되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편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방법의 개선으로 학생 교육에 있어 논술의 비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도내 각급 학교의 비치도서 대다수가 낡고 수량이 매우 부족하므로 차후 예산편성시 학교도서구입비가 더욱 확대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별 교육예산 투자에 있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더 고려하여 시·군간, 도·농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협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애쓰신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8

( 끝에 실음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김광수위원장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 4월에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최초로 발언 신청을 하신 이충원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이충원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최초의 발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제가 무겁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교외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난 30일 입에 담기 어려운, 생각하기마저 어려운 참사가 화성군 C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도에도 공·사립학교의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일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회 때에 조일환의장님께서도 애도의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들의 시설의 설립 및 관할과 감독권 여부를 불문하고 대부분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30일 사건이 난 후 제가 어느 수련원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금년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도 시설조사를 한 일이 없으며, 내일 중 검사가 나온다고 하여 준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듣기로는 꽤 많은 학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중 여름캠프 등 각종 교외활동을 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도 그렇지만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 않게 무조건 교육계획의 포기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학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중 수련계획 수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축되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각종 연수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교육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급자격증 취득 등에는 법적으로 교과목에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꼭 각종 연수에 안전교육 분야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저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계 학생보건 대책입니다.

보은중학교와 원남중학 학생들의 집행 유행성 이하염 상황이 지상에 보도된 바 있지만은 다행히 학교와 교육청의 민활한 대처로 초기에 진정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못 가봤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주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전염병이지만 이제는 병균의 변질로 예방주사를 믿기 어려운 시점에 왔다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균의 변질적 확산은 놀랄 정도입니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보건 문제는 다른 문제 못지않은 관심을 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 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

교의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농촌 벽지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수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호선생님들은 단순한 양호 업무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학생보건 교육에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앞으로 연구해 봐야 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보건교육 분야의 정과시간 담당이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학생들과 접해서 건강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학생들과 직접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관찰과 건강이해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양호선생님들의 연수기회를 좀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호선생님들의 연수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의학의 발전을 생각할 때 어느 분야보다도 의료계의 재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법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모순은 앞으로 저희가 힘을 합해서 조금은 제거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승진, 즉 상급자격 기회를 주도록 저희가 법, 제도적인 것을 개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호교사는 평생 양호교사로 그냥 끝나는 것보다 주임도 되시고, 또 더 발전적이면 교감선생님도 되시고, 교장선생님도 되시고 하는 이런 기회를, 승진기회를 앞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법적으로 막혀있습니다.

즉, 소규모 학교에는 고정근무 양호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근무는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문제도 있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인데 복수근무 학교는 농촌지역입니다.

인근에 의료기관도 아닌, 또 의료기관도 없고, 의료상식이 도시보다는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아는 분이 없어 뒤집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이들을 한 학교의 양호선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료센터의 책임자로 생각하여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해결하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이 문제는 영양교사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첨부해서 기간제, 요새 교사의 문제가 논

의가 되는데 이 문제도 역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 양호선생님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사람의 하나입니다.

처음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저 발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문제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렸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조일환

이충원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흘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청소년 수련원의 화재사고는 23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 와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희생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번 여름방학 동안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학교급식 관계나 집단 전염병 등 학생들의 보건위생 대책도 아울러 살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이충원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통·폐합 대상인 충주수상초등학교 외 3개교를 방문하였으며,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들을 심사후 의결하여 주셨고, 회의규칙 개정후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

회기동안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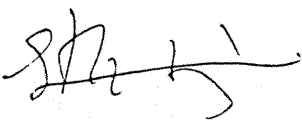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홍재문,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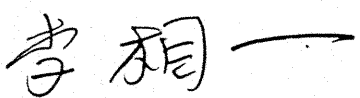
## ※ 부 록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7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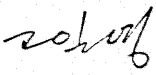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7.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이 상 일 

위 원 이 충 원 

의사국장 고 일 영 





(별첨 1)

# 議 事 日 程

第10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9. 6. 29. ~ 7. 2. (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9. 6. 29.(화) 13:30 14: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9. 6.29. ~7.2. (4일간)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 및 지방채 발행안(제안설명)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6. 30.(수)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7. 1.(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7. 2.(금)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 및 지방채 발행안 3.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의안번호	제 103-1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7. 2 . (제 103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7.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사유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개편
-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신설학교 교명 변경

## □ 주요골자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 분교폐지(3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공전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265번지	'99. 9. 1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용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2번지	"	
범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	

- 분교장 폐지(14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세성초등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99. 9. 1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동량초등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	
봉양초등학교 봉남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540번지	"	
옥산초등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삼산초등학교 중초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99. 9. 1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학산초등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	
한천초등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	
백봉초등학교 장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	
원남초등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	
상진초등학교 적성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9교)

개편전 명칭	개편후 명칭	위 치	개편년월일
수상초등학교	노은초등학교 수상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99. 9. 1
도원초등학교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
소로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
가좌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
유리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
구성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구성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
지탄초등학교	이원초등학교 지탄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
광진초등학교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
상평초등학교	감곡초등학교 상평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

○ 교명변경(1교)

변경전교명	변경후교명	위 치	변경사유	비 고
죽천초등학교	진흥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택지개발지구내 2-2BL	주민들의 건의	'99. 9. 1 개교예정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조 례 안 : 불임

참고사항 : 불임

- 신구조문대조표
- 관계법령발췌서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지침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 등 학 교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4번지
용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번지
상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2번지
석 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0번지
증 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청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덕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656번지
울 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1034번지
우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7번지
덕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10번지
용 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86번지
용담초등학교현양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1번지
청주내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61번지
금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13-1번지
북 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28번지
운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번지
새 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00번지
원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28번지
한 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977번지
복 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09-4번지
모 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372번지
운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3-7번지
흥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5번지
창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명 칭	위 치
사 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4번지
강 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121-1번지
내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10-2번지
서 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83번지
봉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05번지
봉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141번지
한 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2번지
수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9번지
가 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3번지
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2번지
분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택지개발지구내 A-3BL
경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3번지
원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택지개발지구내 A-4BL
경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4번지
진 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택지개발지구내 2-2BL
남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번지
충주교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성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예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충주남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단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 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달천초등학교매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남 한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대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충주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연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32번지

명 칭	위 치
탄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824번지
칠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727번지
충주용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1번지
세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수 안 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 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대 소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번지
주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72번지
덕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265-1번지
용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 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 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노은초등학교수상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양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58-1번지
강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능 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 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탐평리 212-1번지
가 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400-1번지
오 석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 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대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 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엄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목 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 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랑리 199번지
야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명 칭	위 치
등 명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68번지
의 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립동 186번지
남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2동 255-12번지
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260번지
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1동 606번지
홍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96-1번지
두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 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8-1번지
제천중앙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25번지
용 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번지
신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212-7번지
봉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21번지
왕 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757번지
금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청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수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번지
덕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한 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 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송 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64번지
입 석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송학면 입석리 609-2번지
남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08-1번지
낭성초등학교갈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1-1번지
미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초등학교용곡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291번지
미원초등학교종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종암리 387번지
미원초등학교기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명 칭	위 치
금 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가 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가덕초등학교상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행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남 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 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번지
두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 원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 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 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옥 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외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 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 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만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옥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초등학교소로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 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각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북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0-2번지
석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명 칭	위 치
대 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1번지
비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00번지
수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63-1번지
수성초등학교구성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삼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동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종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수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수정초등학교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번지
수정초등학교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관 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세 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번지
탄 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탄부초등학교사직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삼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송 죽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92-4번지
수 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35번지
회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 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내 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초등학교이곡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 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2번지
산외초등학교장갑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8번지

명 칭	위 치
죽향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삼양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동이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동이초등학교우산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안남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안내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청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초등학교묘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19-1번지
능월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청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이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14-7번지
이원초등학교지탄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서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약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용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구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황간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1번지
노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추풍령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번지
매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상촌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양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31-2번지
미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리 697-3번지

명 칭	위 치
용 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양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심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진천상산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진천삼수초등학교매산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성 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이 월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52-4번지
학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 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초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 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구정초등학교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문 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 상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 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상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0-18번지
괴산명덕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 인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감 물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장 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 풍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명 칭	위 치
칠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 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청천초등학교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 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덕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청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중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죽 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 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도 안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 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보광초등학교화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보광초등학교백미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
소 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목 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75-1번지
수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 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평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무 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용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 선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 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 이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 장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 남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통리 371번지



명 칭	위 치
하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 동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 소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 윤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 성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번지
능 산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 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 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51-1번지
감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89-2번지
감곡초등학교상평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2-1번지
원 당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상 진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 곡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영 춘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영춘초등학교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별 방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어 상 천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어상천초등학교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 포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가 평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대 가 초 등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 초등학교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과	위	치	과	위	치	과	위	치
주 성 초 등 학 교 ( 생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략 )	( 현 행 )										
죽 친 초 등 학 교 ( 생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허북대택지개발지구내 2-2B, C 략 )	진 흥 초 등 학 교 ( 현 행 )										
세 성 초 등 학 교 공 이 분 교 장 ( 생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략 )	( 삭 )										
수 상 초 등 학 교 ( 생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략 )	노 은 초 등 학 교 수 상 분 교 장 ( 현 행 )										
동 량 초 등 학 교 서 운 분 교 장 ( 생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략 )	( 삭 )										
봉 양 초 등 학 교 봉 남 분 교 장 ( 생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540번지 략 )	( 현 행 )										
공 진 초 등 학 교 ( 생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진리 265번지 략 )	( 삭 )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도원초등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문의초등학교도원분교장	(현행)	과	감	음	
옥산초등학교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삭)		제			
소로초등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옥산초등학교소로분교장	(현행)	과	감	음	
가좌초등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가좌리 129번지		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장	(현행)	과	감	음	
유리초등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현행)	과	감	음	
구성초등학교	(생)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수성초등학교구성분교장	(현행)	과	감	음	
삼산초등학교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삭)		제			
삼산초등학교중초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과	위	과	치
( 생 )	청성초등학교화성분교장	략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 현 행 )	( 삭 )	과	같 음 )	과	같 음 )
( 생 )	지 탄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 현 행 )	( 삭 )	과	같 음 )	과	같 음 )
( 생 )	용 암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2번지	이원초등학교지탄분교장		과	같 음 )	과	같 음 )
( 생 )	하 산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영동군 화산면 봉산리 563-1번지	( 현 행 )	( 삭 )	과	같 음 )	과	같 음 )
( 생 )	범 화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영동군 화산면 범회리 748-1번지	( 현 행 )	( 삭 )	과	같 음 )	과	같 음 )
( 생 )	한 친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 현 행 )	( 삭 )	과	같 음 )	과	같 음 )
( 생 )	광 진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 현 행 )	( 삭 )	과	같 음 )	과	같 음 )
				장연초등학교광진분교장		과	같 음 )	과	같 음 )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과	위	치	치
( 생 )	백봉초등학교교감분교장	략 )	충청북도 피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생 )	원남초등학교문암분교장	략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생 )	상 평 초 등 학 교	략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생 )	단양초등학교금곡분교장	략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생 )	상진초등학교적성분교장	략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생 )	영춘초등학교동대분교장	략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생 )		략 )		( 현 행 )	행 ( 삭 )	과	같 음 )	음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지침

### □ 통·폐합 추진 기준

- 초등학교
  - 본 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분교장 - 학생수 20명 이하
  - 1면 1분교 유지 원칙
  - 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중 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고등학교
  - 학생수 100명 이하

### □ 통·폐합 추진시기

- 2000년 통·폐합 예정교는 금년 중 통·폐합 실시
- 2001년 이후 통·폐합 계획교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

(첨 3)

의안번호	제 107-2 호
의 결	1999. 7. 2.
년 월 일	( 제 107 회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6. 27.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09-2
----------	-------

제출년월일 : 1999 . 6 . 2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취득

- 0 청주교육청 충북학생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89번지(구 현암초등학교부지) 5,091㎡

### 공유재산의 처분

- 0 폐교재산 매각 2교
  - 제천 (구) 한수중학교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번지의 4필지 92,565㎡
    - 위 지상 건물 3동 1,200.58㎡
    - 위 지상 공작물 6종
  - 괴산 (구) 오수초등학교
    -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196-9번지의 2필지 13,820㎡
    - 위 지상 건물 9동 1,102.4㎡
    - 위 지상 공작물 4종



### 3. 제안근거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서: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설 명 자 료 : 별 책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sup>2</sup>, 천 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5,091	606,300	1	5,091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5,091	606,300	1	5,091
처 분	계	토지			2	106,385	138,574	2	106,385	138,574
		건물			2	2,302.98	390,621	2	2,302.98	390,621
		기타			2		64,317	2		64,317
	4. 매 각	토지			2	106,385	138,574	2	106,385	138,574
		건물			2	2,302.98	390,621	2	2,302.98	390,621
		기타			2		64,317	2		64,317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7-2)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천 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청주교육 청	공작물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89	5,091	606,300	하반기	로울러선수육성	충청북도 교육감	1쪽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1교	5,091	606,300				
		계	1교	5,091	606,300				

## 매각대상 재산목록(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천 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금 액	매각 시기	매 각 사 유	매수희망 자 주소 성 명	비고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구,한수중 학교	토 지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309-1외4	92,565	111,487	하반기	폐교재산매각	월악산국 립공원관 리사무소	2-6 쪽
		건 물	"	1,200.58	231,201				
		공작물	"	6중	60,131				
2	구,오수초 등학교	토 지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196-9외2	13,820	27,087	하반기	폐교재산매각		7-10 쪽
		건 물	"	1,102.4	159,420				
		공작물	"	4중	4,186				
계		토 지		106,385	138,574				
		건 물		2,302.98	390,621				
		공작물		10중	64,317				
		입목죽							
		계				593,512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 제10조(公示地價의 適用)

제10조(公示地價의 適用) ①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目的에 따라 加減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별첨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서(안)  
설 명 자 료

# 청주교육청 충북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계획

## 1. 취득 재산의 표시

구 분	소 재 지	지번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비 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89	5,091	606,300	현암초부지

## 2. 취득사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로울러 스케이트 종목을 정책종목으로 육성하고 사회 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정규 트랙 규격의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시설하고자 함.

## 3. 취득 세부내역

### 0 시설비

- بانك트랙 ( 100.910 m × 44.480 , 주행폭 8m)	451,500,000
- 건물 철거비 4,500,000원 × 11실	49,500,000
- 포장 및 연습주로 ( 5m × 50m × 1.2m )	45,000,000
- 샤워실	20,000,000
- 배수로 140,000원 × 120m	16,800,000
소 계	582,800,000

### 0 시설부대비

- 기본 및 실시설계	19,925,000
- 부대비	3,575,000
소 계	23,500,000

합 계 606,300,000



## 구,한수중학교 재산 처분 계획

### 1. 학교 연혁

- 개교 년월일 : 1964. 12. 16.
- 폐교 년월일 : 1999. 3. 1.

### 2. 처분재산내역 : 총 402,819천원

#### ○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금액(천원)
제천 한수면 송계리	309-1	전	7,133	52,113
	313	학교용지	1,913	9,594
	323-1	전	1,559	12,698
	1167-3	학교용지	439	3,576
제천 한수면 역리	산5	임 야	81,521	33,506
계	5필지		92,565	111,487

#### ○ 건 물

소 재 지	용도	구 조	건축년도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	교 실	철.콘.슬	1983	1,113.4	201,714
	사 택	시.벽.슬	1983	43.5	13,117
	사 택	"	1989	43.68	16,370
계	3동			1,200.58	231,201

○ 공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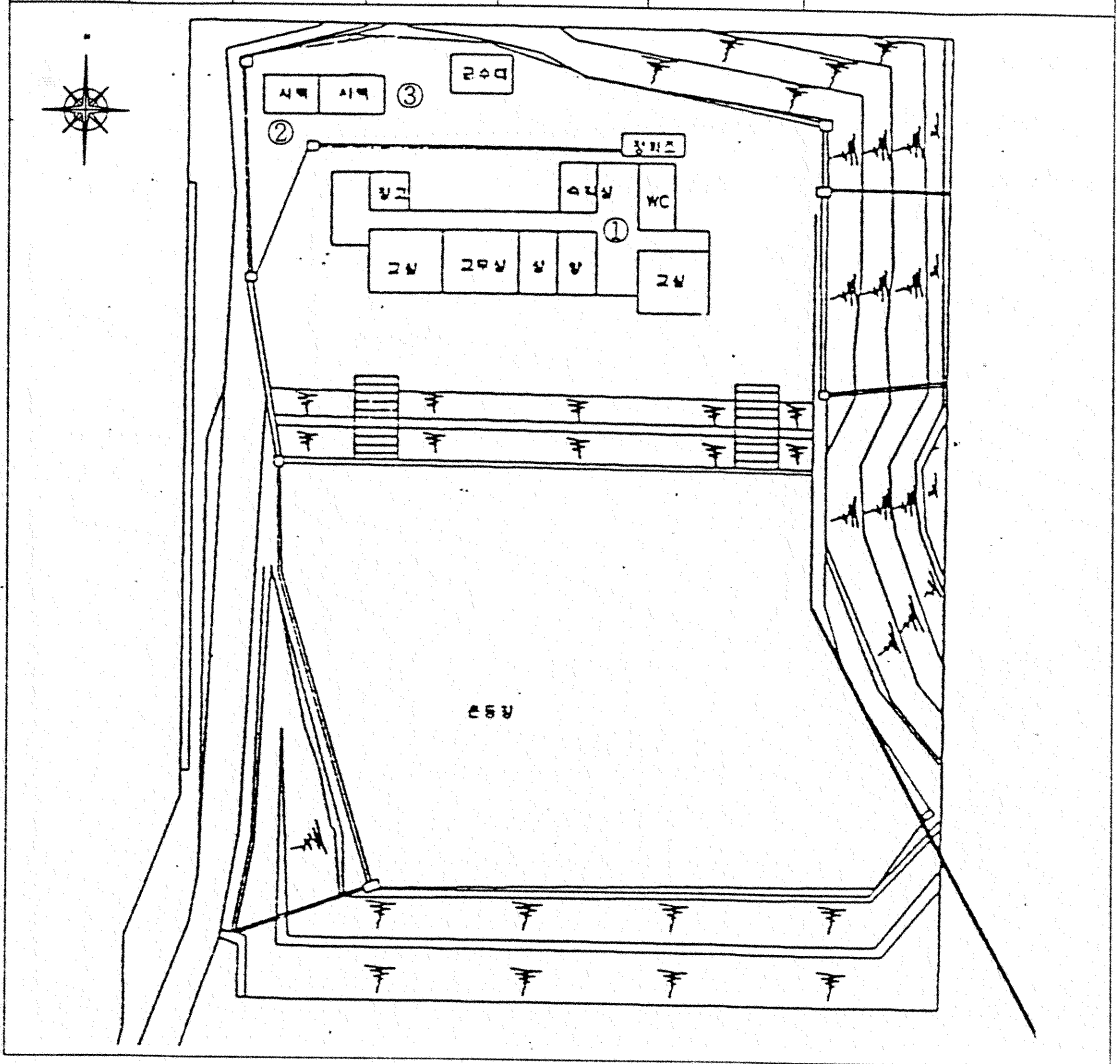
소 제 지	용 도	수 량	금 액(천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	수중모타	1식	17,658
	계 단	2식	1,410
	축 대	1식	20,143
	축 대	1식	3,525
	배 수 로	1식	11,079
	담 장	1식	5,076
	포 장	1식	1,240
계	6종		60,131

3. 처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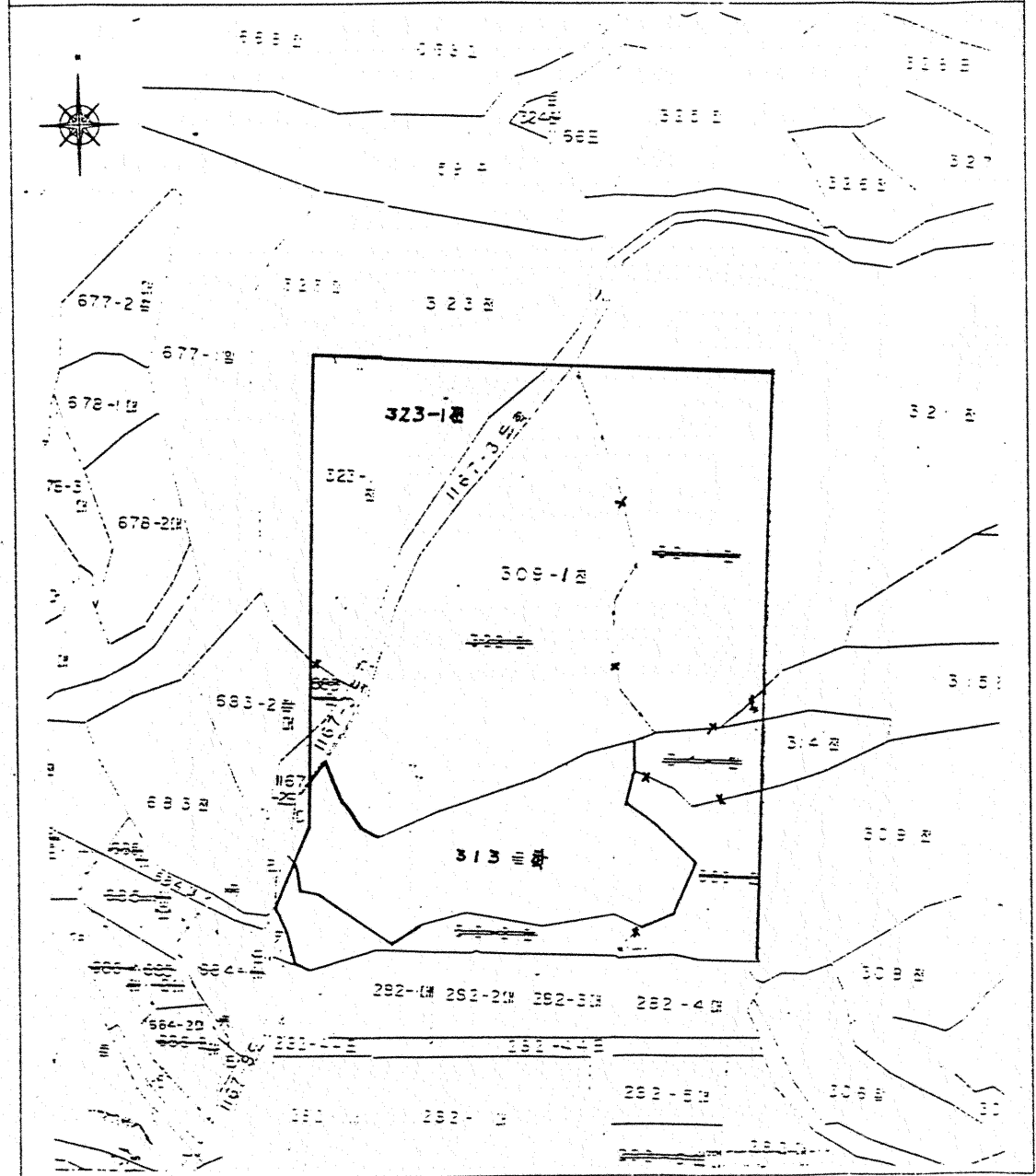
이 학교는 1964. 12. 16 자 개교하여 소규모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도모를 위한 통합운영추진계획에 따라 송계초등학교와 한수중학교가 1999.3.1자 통합운영된 학교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함.

## 구,한수중학교 건물 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비고
①	교실	철.콘.슬	1983	1,113.4	201,714	0보존불필요
②	사택	시.벽.슬	1983	43.5	13,117	0매각대금은교육환경
③	사택	"	1989	43.68	16,370	개선사업에 제투자
계	3동			1,200.58	23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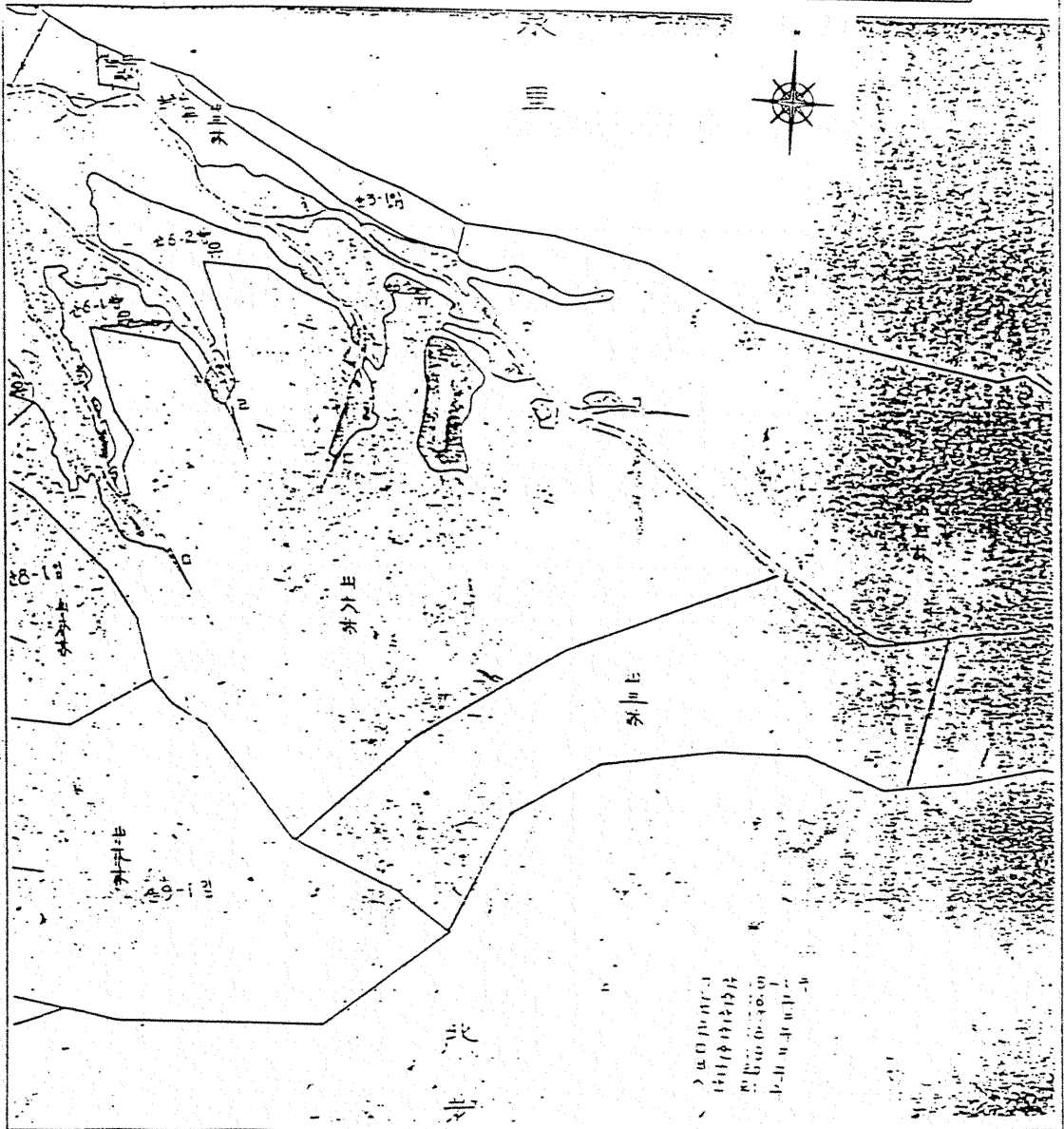


# 구,한수중학교 지적도



# 구,한수중학교 임야 지적도

제천시 관수읍 덕흥리 동가산 1번지 축척 1/10000 분의 1



## 구,오수초등학교 재산 처분 계획

### 1. 학교 연혁

- 개교 연월일 : 1962. 9 . 1.
- 폐교 연월일 : 1999. 3 . 1.

### 2. 처분재산내역 : 총190,693천원

#### ○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괴산군 연풍면 유태리	196-9	학교용지	6,892	13,508
	204-1	"	6,307	12,362
	200-1	대 지	621	1,217
계	3필지		13,820	27,087

※국유재산 2필지 2,578m<sup>2</sup>는 총괄청에 인계예정

#### ○ 건 물

소 재 지	용 도	구 조	건축년도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괴산군 연풍면 유태리196-9외 2	교 실	시.벽.슬	1971	330.6	12,632
	"	시.벽.스	1970	328.3	25,249
	"	철.콘.슬	1989	274.2	88,119
	숙직실	시.벽.슬	1986	18.7	6,224
	사 택	"	1987	58.5	15,195
	창 고	"	1988	42	6,377
	"	"	1987	10.5	1,194
	화장실	"	1981	19.8	3,484
	"	"	1965	19.8	946
계	9동			1,102.4	159,420

○ 공 작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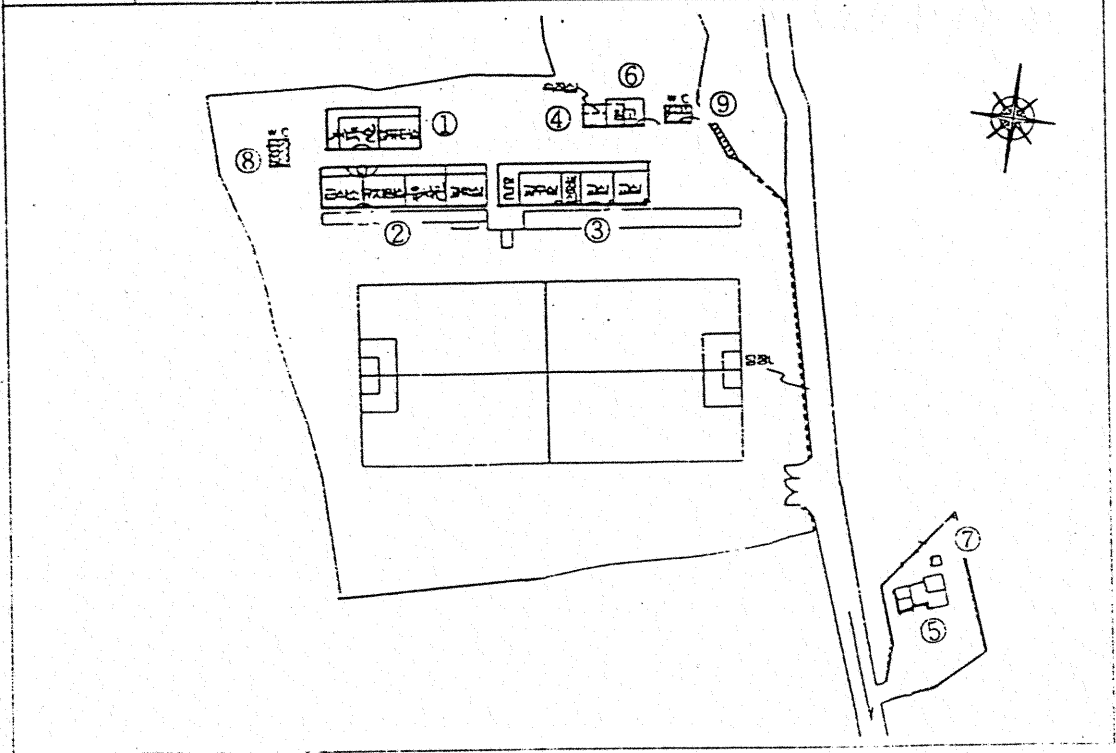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천 원)
괴산군 연풍면	교 문	1식	152
유하리 196-9외2	남 장	1식	117
	간이수도	1식	225
	운동기구	13식	3,692
계	4종		4,186

3. 처분사유

이학교는 1962. 9. 1 자 개교하여 1999. 3. 1 자 문닫은 학교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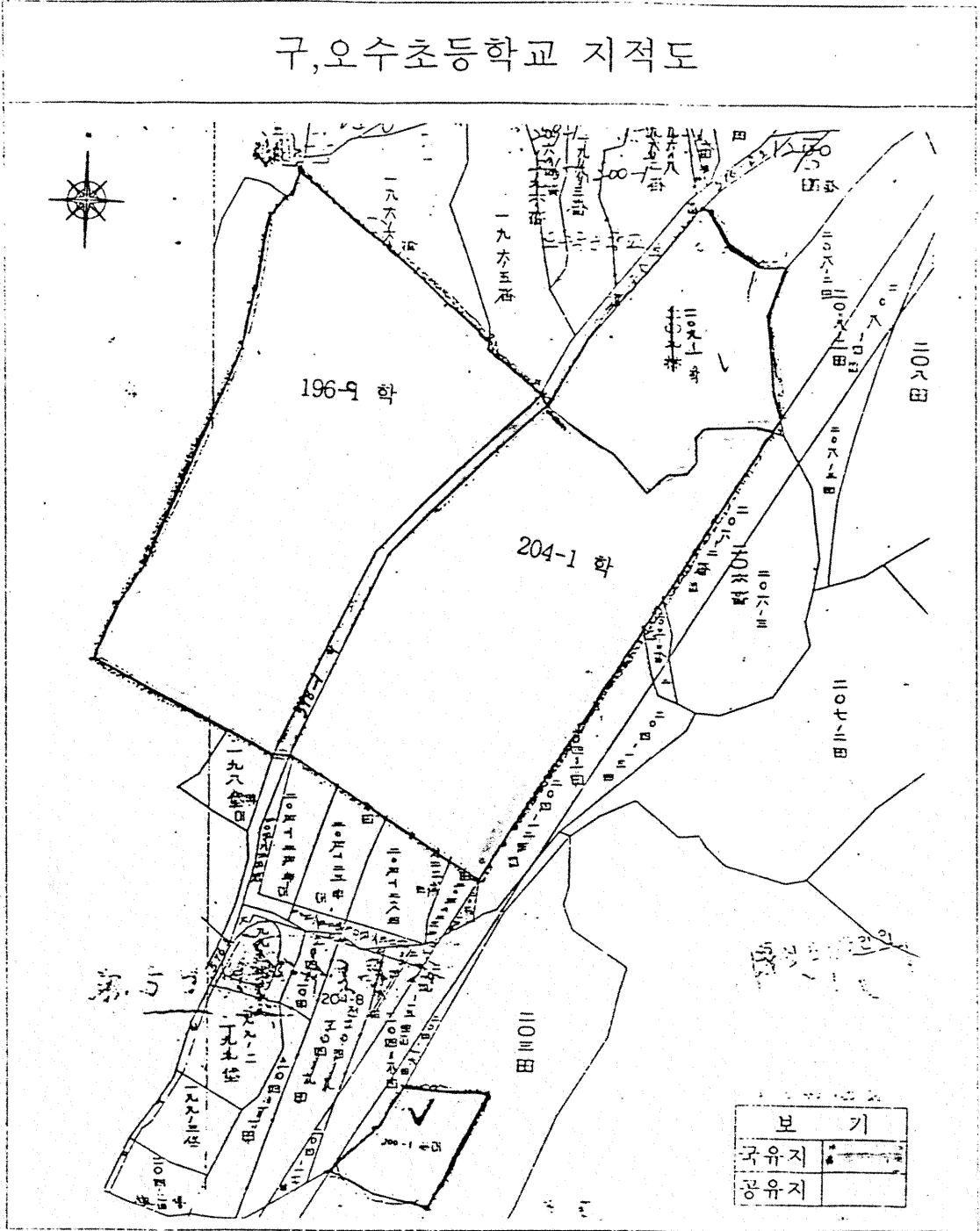
## 구,오수초등학교 건물 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비고
①	교실	시.벽.슬	1971	330.6	12,632	0보존불필요
②	"	"	1970	328.3	25,249	0매각대금은교육
③	"	철.콘.슬	1989	274.2	88,119	환경개선사업에
④	숙직실	시.벽.슬	1986	18.7	6,224	제투자
⑤	사택	"	1987	58.5	15,195	
⑥	창고	"	1988	42	6,377	
⑦	"	"	1987	10.5	1,194	
⑧	화장실	"	1981	19.8	3,484	
⑨	"	"	1965	19.8	946	
계	9동			1,102.4	159,420	





# 구,오수초등학교 지적도





(별첨 5)

의안번호	제107-기호
의결	1999. 7. >
년월일	(제107회)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및지방채발행(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6. >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특 용자 및 지방채 발행(안)

의안 번호	107-3
----------	-------

제출년월일 : 1999. 06. 2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 제안사유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보전을 위하여 재정용자특별회계 용자 및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의거 사전 심의·의결을 받기 위한것임.

### 주요골자

- 사업명 : 교원정년조정에따른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부담금 지급
- 지방채 발행 계획액 : 349억 78백만원(재정 소요액 현황 : 별첨1)
- 차입선
  - 재정용자특별회계 : 32억 50백만원
  - 농협중앙회 차입 : 317억 28백만원
- 이율
  - 재정용자특별회계 용자 : 6.5%, · 농협 차입 : 연리 8.25%
- 용자시기 : 별첨2
- 상환방법
  - 재정용자특별회계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원금조기상환 가능)
  - 농협중앙회 차입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원금조기상환 가능)
- 상환재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재특회계 용자금 및 지방채 상환계획 : 별첨3

교육부장관승인서 사본 : 별첨4

<별첨 1>

재정 소요 부족액 현황

□ 정년 및 명예퇴직 현황

(단위:명)

구 분	정년(65세)퇴직인원			명예퇴직(예정)인원			계			
	초등	중등	소계	초등	중등	소계	초등	중등	계	
'99년 2월말	공립	54	34	88	135	184	319	189	218	407
	사립		4	4		9	9		13	13
	소계	54	38	92	135	193	328	189	231	420
'99년 8월말	공립	84	58	142	544	299	843	628	357	985
	사립		13	13	5	83	88	5	96	101
	소계	84	71	155	549	382	931	633	453	1,086
합계	공립	138	92	230	679	483	1,162	817	575	1,392
	사립		17	17	5	92	97	5	109	114
	계	138	109	247	684	575	1,259	822	684	1,506

□ 예산 소요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99.총예산소요액(A)			확 보 예산액 (B)	부족액 C=A-B	비고
	2월말집행액	8월말소요액	계			
명예퇴직 수 당	12,145	35,343	47,488	28,257	19,231	
퇴직수당 부 담 금	19,797	47,515	67,312	51,565	15,747	
계	31,942	82,858	114,800	79,822	34,978	

<별첨 2>

재특회계 용자 및 지방채 발행 시기

(단위:백만원)

용자시기	금액	누계	비고
1999. 2월			
1999. 3월			
1999. 4월			
1999. 5월			
1999. 6월			
1999. 7월			
1999. 8월			
1999. 9월	18,000	18,000	
1999. 10월			
1999. 11월	16,978	34,978	
1999. 12월			
합 계	34,978	34,978	

예탁금 관리자 인적사항

- 교육감 성명 : 김영세
- 담당부서명(국, 과) :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  
부서장명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전화번호 : (0431) 279-0218
- 담당자 성명 : 세입담당 이만기  
전화번호 : 279-0278
- 우편번호(361-703)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번지

예탁금 계좌현황

- 예금주명 : 충청북도교육청
- 은행명 : 농협중앙회(청원군농협 충청북도교육청출장소)
- 계좌번호 : 338 - 01 - 004122(도세입금계좌)

<별첨 3>

재특회계 용자금 및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상환계획			상환재원		
	계	원리금	이자	계	교육비 특별회계	국고지원
1999년	709		709	709	574	135
2000년	2,829		2,829	2,829	2,274	555
2001년	8,062	5,288	2,774	8,062	7,518	544
2002년	12,964	10,901	2,063	12,964	12,571	393
2003년	12,382	11,226	1,156	12,382	12,174	208
2004년	6,234	5,938	296	6,234	6,199	35
2005년	740	650	90	740	740	
2006년	697	650	47	697	697	
2007년	333	325	8	333	333	
합 계	44,950	34,978	9,972	44,950	43,080	1,870





3. 지방채 발행(재특용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용자)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채 발행(재특용자)승인 요청 : 시·도교육청→교육부

나) 지방채 발행(재특용자) 승인 : 교육부→시·도교육청

다) 시·도 교육위원회, 지방의회에 지방채 발행(재특용자) 심의·의결(추가경정예산편성) : 시·도교육청

라) 지방채 발행(재특용자)약정서 체결 : 시·도교육청↔금융기관(재정경제부)

마) 지방채 발행(재특용자) 약정서 송부(교부 요청) : 시·도교육청→교육부

바) 지방채 발행 약정서 내용 통보 : 교육부→금융기관

사) 지방채 자금 송금 : 금융기관→시·도교육청

아) 재특용자 배정 요청 : 교육부→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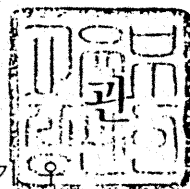
자) 재특용자 자금 배정: 재정경제부→시·도교육청

4. 지방채 발행 약정서 내용 변경시(이율이 당초 8.25%보다 높을 때)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변경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초과되는 이율에 대하여 우리부에 요청할 때에는 용자약정서 사본 1부와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용자 심의·의결된 의결서 사본 각 1부씩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5. 재특용자를 배정 요청할 때에는 소요시기 전월 5일까지 용자약정서 사본 1부와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용자 심의·의결된 의결서 사본 각 1부씩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재 13320-294 : '99.4.22 참조) 끝.

교육부장

전결 교육환경개선국장 이기우





(별첨 6)

의안번호	제 101-4호
의 결	1999. 7. >
년 월 일	(제 103 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6. >>

## 1999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077-4
----------	--------

제출년월일 : 1999. 6. 2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 119억 647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50억 4,78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 세출예산중 교육위원회비 542만원, 급여관리 344억 3,628만 9천원, 교육행정비 20억 676만 2천원, 교육사업비 6억 7,710만원, 학교비 73억 9,315만 7천원, 사학지원비 24억 4,981만 3천원, 시설비 54억 4,758만 9천원, 제지출경비 7억 948만 9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1억 7,131만 9천원을 감액하여

○ 추가경정예산액을 기정예산 7,488억 6,518만 1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469억 5,430만원이 증액된 7,958억 1,948만 1천원으로 함.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 7)

(제103회 임시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9. 7.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 목 차

1. 심사경과 .....	77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77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79
4. 토론 주요내용 .....	79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79
6. 심사결과 .....	80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80
8. 기타 필요한 사항 .....	80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6월 29일(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6월 2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7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개편
-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신설학교 교명 변경

나. 주요골자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 분교폐지(3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공전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265번지	'99. 9. 1.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용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2번지	'99. 9. 1.	
범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99. 9. 1	

- 분교장 폐지(14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세성초등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99. 9. 1.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동량초등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99.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li> <li>·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li> </ul>
봉양초등학교 봉남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540번지	"	
옥산초등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	
삼산초등학교 중초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	
학산초등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	
한천초등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	
백봉초등학교 장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	
원남초등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	
상진초등학교 적성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9교)

명 칭	개편후 명칭	위 치	개편년월일
수상초등학교	노은초등학교 수상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99. 9. 1.
도원초등학교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도리 243번지	"
소로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
가좌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
유리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
구성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구성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
지탄초등학교	이원초등학교 지탄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
광진초등학교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
상평초등학교	감곡초등학교 상평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

○ 교명변경(1교)

변경전교명	변경후교명	위 치	변경사유	비 고
죽전초등학교	진흥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택지개발지구내 2-2BL	주민들의 건의	'99. 9. 1 개교예정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장 개편과 지역주민 요구에 의한 교명변경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집행청에 당부드릴 사항은 이미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향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통·폐합의 추진보다는 대상 학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타 시·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과 기 통·폐합된 학교의 운영상황 등을 연구·분석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년 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여 가급적 학년초에 통·폐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8)

(제103회 임시회)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1999. 7.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 목 차

1. 심사경과 .....	83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83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83
4. 토론 주요내용 .....	83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84
6. 심사결과 .....	88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88
8. 기타 필요한 사항 .....	88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29일

다. 상정일자 : 1999년 6월 29일(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9년 6월 29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1999년 7월 1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 119억 647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50억 4,7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세출예산중 교육위원회비 542만원, 급여관리 344억 3,628만 9천원, 교육행정비 20억 676만 2천원, 교육사업비 6억 7,710만원, 학교비 73억 9,315만 7천원, 사학지원비 24억 4,981만 3천원, 시설비 54억 4,758만 9천원, 제지출경비 7억 948만 9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1억 7,131만 9천원을 감액하여,
- 추가경정예산액을 기정예산 7,488억 6,518만 1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469억 5,430만원이 증액된 7,958억 1,948만 1천원으로 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예산편성 개요

#### □ 예산규모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48,865,181천원보다 46,954,300천원이 증액된 795,819,48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가되었는데, 기관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계	795,819,481	100.0	748,865,181	100.0	46,954,300	6.2
교육위원회	693,485	0.1	687,825	0.1	5,660	0.8
본청	623,087,675	78.3	577,292,069	77.1	45,795,606	7.9
지역교육청	168,794,451	21.2	161,470,098	21.6	7,324,353	4.5
예비비	3,243,870	0.4	9,415,189	1.2	△6,171,319	△65.5

####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1,906,470천원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5,047,83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재원별	예산액	구성비(%)	세입내역
합계	46,954,300	100.0	
특별교부금	7,649,098	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장자격연수경비 163,936</li> <li>○ 교육소식구독 14,326</li> <li>○ 학교교육계획서심사경비 26,562</li> <li>○ 고교급식시설 2,569,000</li> </ul>

재원별	예산액	구성비(%)	세입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기적성교육지원 1,630,359</li> <li>○학교교육계획서우수학교지원 373,500</li> <li>○교과용도서실험연구학교 2,000</li> <li>○교육마당21구입 4,346</li> <li>○교과교육연구회연구비지원 393,810</li> <li>○교육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지원 30,000 (보조금→특별교부금)</li> <li>○자율학교시범운영 20,000</li> <li>○과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 2,020,000</li> <li>○새학교문화창조시범학교 10,000</li> <li>○서원학원교육환경개선비 391,259</li> </ul>
보조금	4,257,372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실수업개선을위한열린교육지원 117,850</li> <li>○중식지원비 304,494</li> <li>○평생교육시범학교 5,000</li> <li>○독서교육교원연수및사례발표 10,000</li> <li>○교과교육연구회연구비지원 100,000</li> <li>○독서교육연구학교 10,000</li> <li>○학교운동경기부지원 111,000</li> <li>○문화학교사업비 6,000</li> <li>○지역중심평생학습관운영 20,000</li> <li>○영어보조원임용 60,000</li> <li>○체육계학교육성 14,182</li> <li>○컴퓨터교육인력지원 237,922</li> <li>○직업교육확충 3,360,574</li> <li>○귀국학생담당교사연수(초등1명) 410</li> <li>○국가공통절대평가기준시범학교지원 △1,500 (10,000→8,500)</li> <li>○초등영어교사지원 (123,510→119,488) △4,022</li> <li>○학교전산망구축 (610,150→205,707) △404,443</li> <li>○교원용컴퓨터보급 (58,032→125,105) 67,073</li> <li>○실습용컴퓨터보급 (330,215→588,047) 257,832</li> <li>○생활기록부전산화시범학교(충북공교) 4,500</li> <li>○순회코치인건비 10,500</li> <li>○교육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지원 △30,000 (보조금→특별교부금)</li> </ul>
지방채	34,978,000	74.5	○교원명예퇴직수당 34,978,000
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대가료	69,830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 23,750</li> <li>○1998년도 순세계잉여금조정 16,012</li> <li>○단양 올산분교외 2교 대가료 30,068</li> </ul>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5,660천원, 본청 45,795,606천원, 지역교육청 7,324,353천원과 예비비 △6,171,31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관 별	교육위원회	본 청	지역교육청	예 비 비	계	구성비(%)
합 계	5,660	45,795,606	7,324,353	△6,171,319	46,954,300	100.0
교육위원회비	5,420				5,420	0.0
급 여 관 리	240	34,436,049			34,436,289	73.3
교육행정비		1,782,898	223,864		2,006,762	4.3
교육사업비		670,589	6,511		677,100	1.4
학 교 비		4,041,017	3,352,140		7,393,157	15.7
사학지원비		2,168,432	281,381		2,449,813	5.2
시 설 비		1,987,132	3,460,457		5,447,589	11.6
제지출경비		709,489			709,489	1.5
예 비 비				△6,171,319	△6,171,319	13.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명예퇴직수당 및 부담금 34,978,000천원
- 고교 급식시설 2,569,000천원
-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1,630,359천원
- 과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 재정지원 1,410,000천원
- 직업교육확충 3,360,574천원
- 학교교육계획서우수학교지원 373,500천원
- 교과교육연구회연구비지원 493,810천원
- 결식아동중식지원비 304,494천원
- 컴퓨터교육 인력양성 지원 237,922천원
- 교장자격연수경비 137,700천원
-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111,000천원
- 교실수업개선을위한 열린교육지원 102,850천원
- 초등학교 영어보조원 임용 60,000천원
- 교단선진화(3교) 174,000천원
- 컴퓨터S/W보급 730,201천원
- 화훼온실 설치 301,224천원
- 예산업무전산화 110,000천원



○일반직명예퇴직수당	330,000천원
○멀티미디어실 설치	56,352천원
○농업계고 지원	60,000천원
○학교체육활동지원	60,000천원
○통계합학교교육여건개선비	500,000천원
○의료보험 부담금	450,510천원
○지방채 이자	709,489천원
○영동고등학교 사유지매입 및 교실증축	338,963천원
○서원학원교육환경개선	391,259천원
○영동농공고 특별교실증축	147,988천원
○진천농공고 복싱경기장신축	50,000천원
○세광고등학교 지붕방수의 1건	101,240천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606,300천원
○체조경기장 신축	383,000천원
○괴산중학교 천장설치의 2건	151,145천원
○주성중학교 강당보수	250,000천원
○제천 의림초등학교 학생화장실개축	177,362천원
○보은 수한초 교실증축	118,280천원
○옥천 청성초 교실증축	118,280천원
○보은중학교 급식소 시설	80,000천원
○영동중학교 계단실증축	88,962천원
○진천 성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개축	99,250천원
○괴산 삼보초등학교 화장실증축의 1건	98,100천원
○부강중학교 직원화장실 증축	53,500천원
○기타 각과 요구사업	621,005천원
○예비비	
	△6,171,319천원 등임.

## 나. 종합의견

금번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지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 및 지방채 발행, 수수료수입 등 자체수입 조정 등의 세입 재원으로, 특별교부 및 국고지원 사업비의 계상,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계상, 일부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집행청에 당부드릴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분석·검토가 요구되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편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방법의 개선으로 학생교육에 있어 논술의 비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도내 각급 학교의 비치도서 대다수가 낡고 수량이 부족하므로 차후 예산 편성시 학교 도서구입비가 더욱 확대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별 교육예산 투자에 있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더 고려하여 시·군간, 도·농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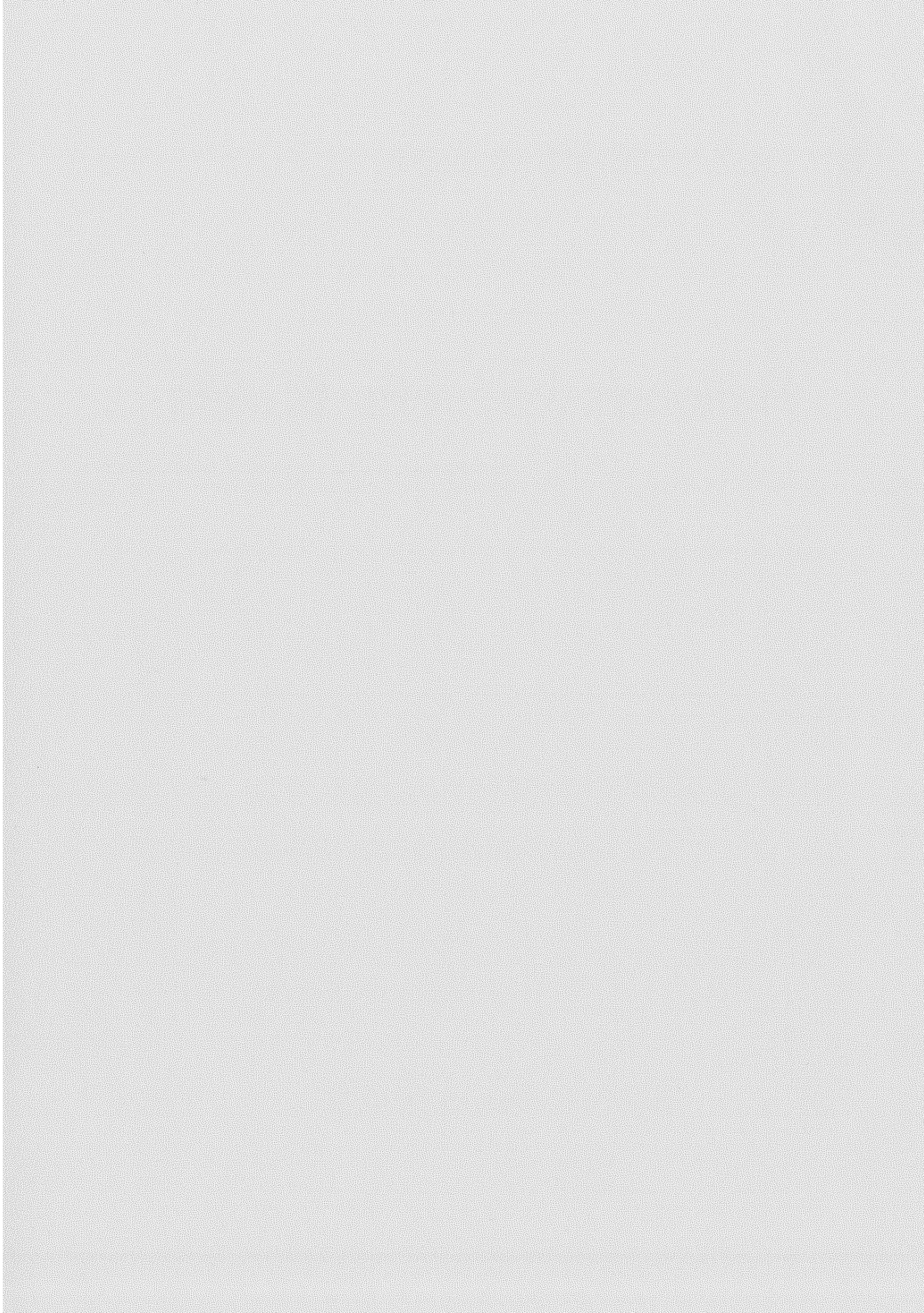
第10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 '99.6.29 ~ 7. 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3
II.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25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	29
2.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설명자료 .....	31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4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29일 (화요일) 15시 03분

## 議事日程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5시 03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15시 03분)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기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기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기수

방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진행하는 조례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집행청에 계시는 국·과장님 많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게끔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05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아까 협의회 시간에 상의된 대로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일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06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로 하여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기획관리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도립학교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설명자료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 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니 위원님께서도 직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내일 두 파트로 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 현장방문 할 곳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교육청을 방문하는데 거기 관리과장님들은 내일 저희가 방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각 시·군의 관리과장님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설명 들으신 것과 같이 각 시·군에서는 이의가 없는지요. 충주, 제천, 청원 순서대로 주옥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차이가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계석에서 “없습니다.”하고 말함)

내일 현장방문을 가게 되는데 현장방문에서 다른 얘기가 만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안되지 않겠는가 싶고, 또 한가지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통·폐합을 하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는 분교가 없이 전부 본교로만 남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분교로 20명 이상 되고, 복식학급되는 그러니까 40명 전후학교는 분교장으로 남습니다. 분교가 싹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김광수 위원

40명이하는 원하면 분교로 두고 40명 이상이 본교였을 적에는 분교장으로 한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6학급 유지가 안 돼가지고 40명, 50명되는 학생수를 가진 3학급, 4학급 또는 5학급 자리 학교는 분교장으로 원하면 분교로 두고 또 분교장에서 20명 이내로 되어가지고 3복식 학급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분교장을 본교로 합치는 그런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때 가서 그것을 강력히 반대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2002년까지 갔을 적에도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현재 교육부에 원 기준대로 하면은 100명 이내의 학교는 분교장을 하던지, 이쪽 본교로 합치던지 그러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요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완화책을 써서 6학급 유지가 되는 데는 60명 내지 70명 정도가 되더라도 그냥 본교유지가 되면은 여기서 원하지 않으면은 통·폐합을 안 했습니다.

단지 20명 이내되는 분교 여기는 3복식 되면은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됩니다. 이런 학교는 본교로 되도록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손만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유보·완화 이런 등등의 말씀을 주욱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가 드린 자료가 지금 .....

● 손만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우리 오늘 회의소 집합 보내주신 자료하고 다른데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설치조례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손만재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건 맞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제시한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손만재 위원  
집으로 보내주신 것하고 어떻습니까?
- 행정담당 서재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간 것은 보류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26개만 이 조례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6개는 조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보류하는 학교는 안 들어가니까 참고로 보류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안에는 26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맞습니다. 그건.
- 손만재 위원  
괴산 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 행정담당 서재문  
괴산은 내일 현장방문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괴산지역의 과장님 설명말씀

을 들으시면은 광진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현재는 독립교입니다.
- 손만재 위원  
광진초등학교 독립교인데 이걸 분교장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가 되겠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런데 여기 학부모들이 동의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동의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여기 말썽이 되어 가지고 내일 도의원까지 그 현장을 온다고 저한테 지금 통보해 주었는데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광진이 4학급에 37명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39명, 그것을 그냥 본교로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4학급을 39명을 본교로 유지해달라. 이걸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6학급은 유지가 되어야지 본교 유지가 돼지. 그러니까 분교장을 하던지, 장연초등학교로 합치던지 그랬을 적에 그럼 그 학부모들이 그럼 우리 분교장으로 해 다고 그렇게 해서 분교장으로 하는 겁니다.
- 손만재 위원  
그 분교장은 동의하셨단 말이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분교장은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신건환

예.

● 손만재 위원

음성 여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절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신건환

없습니다.

● 손만재 위원

먼저 번 마냥 딸똥 나는 것 아니에요?

●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신건환

아닙니다.

● 손만재 위원

진천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장한

예.

● 손만재 위원

알으시지요. 구정초가 저희들이 내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장한

방문계획에 진천은 없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진천은 아닙니다.

● 손만재 위원

진천은 아닙니까?

그럼 구정초가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장한

구정초가 초평면입니다만 남쪽편이라 생활권은 증평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 예비사단 있는 데에서 이쪽 증평 인터체인지 가는 그 길옆에 있습니다.

● 행정담당 서재문

증평에서부터 한 4km정도 됩니다.

● 손만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그러니까 사단가다가 .....

● 손만재 위원

여기도 뭐 별 이의 없으시겠죠?

●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장한

거기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러니까 유보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것이지요. 합쳐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장한

만약에 분교장으로 할 경우는 전부 분교장으로 해달고 그래서 행정구역이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6학급 유지가 되고도 그 학교에는 오산분교장이라고 있습니다. 4학급에 37명 있습니다. 저희도 좀 유보를 해놓고 오산분교장을 본교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보자 그랬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것은 유보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안 들어갑니다.

● 손만재 위원

제천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예.

● 손만재 위원

어떻습니까, 제천 과장님 설명하신 데에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공전초등학교가 처음에는 좀 반발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27명중에 25명이 찬성을 해서 9월 1일자로 봉양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김석환

예.

● 손만재 위원

단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게 면소재지가 아닌 학교로도 합치는 데가 있네요, 단양이. 그런데 이의 없이 거기서 학부형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김석환

상진초등학교 적성분교장인데요. 그 적성분교장 학구 일부가 옛날에 구 단양이었을 때 단양초등학교 학구였습니다. 그래서 적성이 옛날에는 구 단양이 생활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적성면내에 대가초등학교가 있는 있지만 큰 고개를 2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면이지만 생활권이 서로 틀립니다. 대가는 매포 쪽에 생활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적성면 주민들이 전부 다 상진초등학교로 합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이의 없겠죠?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김석환

예,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 손만재 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손만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교육위원 송진하입니다.

본교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3개교가 유보된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송진하 위원

그럼 폐지하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걸 유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6학급이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하지만 내년이 가 가지고 입학할 학생이 없어 가지고 학생수가 급작스럽게 줄어서 유보한 것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1, 2년만에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글쎄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애

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 학구내에서 이웃에 조금 큰 학교나 이런 데로 학구를 위반해서 가는 학교생들이 많습니다. 뭐 많은 건 수치가 도회지 같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학생들까지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학구내로 다가 되도록 오도록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복식 학급이 들어가 가지고 4학급, 5학급으로 떨어질 적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분교장 된다. 그러니까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학급에 9명 이상 돼야지 한 학급 배치를 합니다. 그걸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6학급 유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교로다가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100명 이내의 학교는 원 분교장으로 격하를 시키던지 본교끼리 합치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6월 11일에 위원님들도 청와대에 다녀오셨지만 그때 하도 이 농촌 지역에 문제가 되니까 조금 완화책을 쓰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이미 청와대 그때 갔다 오시면서 바로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책을 썼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6학급 유지는 유보하는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물론 그 통·폐합 대상을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입학 학생 수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고려해서 6학급이 유지가 되어 가지고 통·폐합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1년후에는 분교로 격하된다든가 통·폐합을 다시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가흥초등학교는 가금초등학교와는 통합을 안한다 하는 것인데, 그럼 다른 학교하고는 한다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72년부터 이 지역은 몇 번 다녀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아는데, 가금리하고 가흥리하고 상암리하고 3개리가 가금면을 형성하고 있는데, 가흥리와 가금리는 뭐 20, 30년 전부터 아주 갈등의 골이 참 깊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전에 면사무소가 가흥에 있었답니다. 그 가흥에 있던 면사무소를 가금으로 옮겨가면서 가흥리 사람들은 가금한테 면사무소도 뺏겼다, 그리고 또 지금 학교마저 이렇게 그쪽으로다가 합치려고 그러니까 면사무소도 뺏기고, 지소도 뺏기고, 또 학교마저 뺏긴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뭐 보통 적대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금은 안하고 충주로다 합쳐다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아예 합치려면, 그렇지 않으면 양성으로 해주던지, 아주 충

주 목계로 해주던지, 가금하고는 거기는 안 합친다. 굉장히 그 아마 손만재위원님 거기 교육장님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갈등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굉장히 많이 학부모들이 나왔는데, 절대로 오히려 가금이 우리 학교로 합치면 안 되느냐, 왜 꼭 우리가 가금쪽으로 합치라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학생수가 가금이 더 많고 생활권의 면소재지도 가금초등학교 옆에 있고, 중학교도 거기 있고, 중학교만 보더라도 가금초등학교, 가흥초등학교 중간에 있는 별판에서 있습니다. 길옆에 그전에 개울가였다 나중에 또 한번 옮겨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분교장까지 되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중학교를 세울 적에 중간 가운데 갖다 세워놨어요. 이걸 아주 보통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어디하고 안한다는 것을 꼭 할 필요는 없고, 또 어디하고는 안하고, 어디하고는 하겠다는데 하고자 하는데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래서 가흥은 앞으로 분교장을 할지언정 가금하고는 안 합치겠다하는 것이 그 지역 학부모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한 12억 내지 뭐하면 15억까지 들어서 가금초등학교를 한송같이 한교실을 15교

실 내지 18교실 가지고 본관 앞을 싹 헐고 다시 지어 가지고, 중학교까지 초·중 통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반대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하나의 속제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수정도 되고 했는데 이 수정된 것이 가결이 되면은 뒷말 없도록 잘 추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 수정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금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진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위원입니다.

확실히 몰라서 제가 몇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원칙이 100명이하는 분교장으로 만들던지, 인근학교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게 인제 5월 11일 이후에 조금 완화되어서 6학급이 유지되는 학교는 유지하라. 그 다음에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원하면 유지시키겠다.

● 간사 이상일

1개 면에 1개 교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학생수는 대개 몇 명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지금 적어도 6학급 유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55명선, 뭐하면 60명선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9명이상을 저희가 한 학급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15명이 되면은 8명, 8명되면은 그건 뭐한데 좌우간 15명이 되면은 복식학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명, 8명자리 학교는 복식학급, 8명, 8명자리도 복식학급이 들어가는 데, 이게 학생수가 되다보면 어느 학년은 10명이 되고, 어느 학년은 또 5명이 되고 해가지고 15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학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0명만 되면 그것은 한 학급 띄어 놓고 나머지 학급을 하다보니까 5명이하 6명자리 학급도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있는데 적어도 6학급 유지의 학교가 되려고 하면 55명 이상은 되어야지 유지가 됩니다. 55명에서 6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 간사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요 근래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은 지역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또 지역유지, 주민들 중에 학부모가 아닌 사람은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학부모들은 2복식, 3복식 수업시킬 바에야 이걸 없애버리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학부모 의견을 존

중하는지, 아니면은 그쪽 대중적인 분위기에 그냥 굴복을 해서 중지를 하는 것인지 하는걸 물어보고, 두번째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면은 불평을 하느냐하면,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나왔을 때는 통·폐합 했을 때의 장점만을 강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되도록 유도만 하는 거지, 그 후에 피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해준다. 듣기 좋은 말로 설득만 하려하지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전혀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또 단순히 학교하나 없으면 5억정도의 인센티브 같은게 들어오니까 교육전에 재정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잘 우리 교육청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고 한번 여쭙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를 통·폐합 대상이 되었을 적에 지금 이상일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통·폐합 의견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지역에 가 봤을 적에 지금 말씀대로 학부모들은 대개 큰 학교로 합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동창이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또는 그 학교 앞에 조만한 어떤 구멍가게라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가 없어지면은 그 농촌지역의 하나의 구심점이나, 문화적인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까



하나의 마당, 장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싫어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까 어느 학교 뭐 수상초등학교나 몇 학교는 찬반투표까지 했을 적에는 거기에 득표권이라고 할까 그 의견은 수혜자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야지 맞을 것 같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물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의 의견을 따라서 수혜자 쪽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그 지역의 유지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해당사자한테 물으면 이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작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물론 참작은 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거기에다 의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폐합될 적에 돈을 5억을 준다, 뭐를 준다 해가지고 경제논리를 따져 가지고 그거 하나에 너무 유인책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도 많이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학급 들어가고, 3복식도 들어가고 하니까 도저히 교육여건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조금이라도 뭐 합친다는게 기여 면소재지하고 합치는 겁니다. 군소재하고 합치는 것은 아까도 보셨지만 상진초등학교 하나만 군소재지로 합쳐지지 거의 면소재지하고 조금더 나은 여건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가 이거를 경제논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금년에는 교육부에서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9월 1일에

합치는 것만 준다. 먼저 교육부장관님이 여기에 오셨을 적에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다가 이것이 어떤 그 금년도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내년도에 통·폐합 되는 학교에서도 지금 5억, 2억이라는 그 재정지원은 계속적으로 좀 해달라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방자체 자금으로 지원하던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도 국고금 이외의 이번 추경에도 여기 들어가는데는 그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해서 내부시설이라도, 컴퓨터실이라도, 또는 학습장비라도 더 낮게 해줄려고 그런 재정지원은 하는 것이지, 재정절약을 위해서 통·폐합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가서 얘기하는 것은 나쁜 점 얘기하는 쪽보다는 뭐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가서 그랬습니다. 한송초등학교나 이웃의 통·폐합된 학교를 가보시라, 가서 학부모나 거기의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저희가 통폐합을 했던 학교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그런다면 그건 참 뭐 저희가 잘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보시면은 그 학생들이 잘했다고 하는게 거의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습니다 한송초등학교를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도 제가 실제 가서 가보시라고 그랬습니다.

● 간사 이상일

한가지만 더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감사 이상일

가금초등학교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는데 인원이 안 늘어요. 거기도 몇년 전부터 그 학교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 면장이라든지, 농협조합장,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와 가지고 뭐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 순리대로 될 학교가 유지돼야지 그렇게 애들을 데려다가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가금이나 가흥이 저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되어서 잘못하다가는 50명 미만으로 양쪽 학교 다 떨어졌을 때 저건 다 분교가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저걸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금초등학교 70명입니다. 그리고 가흥초등학교는 59명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제대로 안된다. 그러나 저희가 1면 1교 유지를 위해서는 아까 그 저희가 복식학급 들어가도 전부다 분교장 격하한다고 그랬지만 다른 면에도 이 4학급, 5학급 짜리의 면소재지 하나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회남면에 가면 회남초등학교도 그런 류가 되겠고, 보은지역에도, 그래서 그런 학교는 1면 1교는 그래도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통·폐합을 안 시

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남는다고 그러면 결국 가금초등학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가금면에 창암리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습니까만 그건 학교를 창암초등학교를 폐교할 적에 가금초등학교로 왔어야 되는 건데, 이 학생들이 중앙초등학교 칠금동 쪽으로다가 충주쪽이 가까우니까 학구를 그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학구변경이 충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아무리 가금에 가서 뭐 별 유인책을 써도 시내로 갔던 학생들은 안 옵니다. 그 학생들만 오면은 가금초등학교도 100명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 가금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구위반한 아이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걸 색출해서 아마 데려온다고 그러면 유지가 되는데 한번 간 학생들은 뭐 여간해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감사 이상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충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시실은 참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는 애기지만 애들을 많이 쓰시대요. 특히 관리과장님들이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도와드리질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받아보고 생각을 했습니

다.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이 잘못 된 것이다. 밑으로부터 이게 통합을 원했을 때 통합을 해야지, 어떤 선을 긋고서 자꾸 거기다 뭉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는 것이고, 실제로 지방교육청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자식 제가 가르치는데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의 부모예요. 지역사회고, 도저히 교육이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통·폐합해 다고, 그 대신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원한다. 이렇게 역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합니다. 몇명 끊어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참 어려우시죠, 이걸 맞춰가다 보니까,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통·폐합한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로 봐 가지고 뭐 어려운 것 제가 알고 있지요. 교육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원 찬성을 해서 스스로 우리는 통폐합을 하던지 분교로 격하시켜 주시 오 하는 학교가 여기 나오는데 있는가? 나는 이것을 투표에 붙혀 가지고서 찬반논리에 의해 가지고 한표가 반대해도 반대가 옳을 때 옳은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바로 그거고, 민주주의의 장점이 바로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하면 도시에 있는 학교를 농촌으로 자꾸 가라고 해야 합니다. 왜 땅 비싼 데다 짓나요. 그러면 도시가, 인구가 지역으로 확산되겠지요. 지금

농촌 살리기하면서 말이지요. 농촌을 지금 피폐하게 만드는게 정부의 정말 문제성인 겁니다. 이걸 고쳐야지 현정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하는 방법 중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조사를 해보면 농촌인구에, 도시이동에 그 주원인의 26%가 교육이에요. 교육 때문에 나가겠다는 데야 뭐 특히 한국같은 교육열이 높은 데는 그래서 이걸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농촌 살리기가 아니라 지금 농촌 죽이기에 교육부가 앞장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요. 통학버스 거꾸로 애들 실어나르면 어떤가요 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찬성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학교가 도대체 얼마인가. 표결 붙이지 않고, 그것을 제가 하나 여쭙보고, 그런 학교는 하나도 없다든지 뭐 그렇게 .....

특히 또 하나는 오늘날과 같이 정책의 변동이 많은 사회에서 난 교육부 못 믿겠어요. 며칠 전에는 어떻게 한다하더니 장관 바뀌더니 이런다하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음에 장관 바뀌거나 했을 때 또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두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9월 이전까지 통합 안 하면 돈 안 준다. 돈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그까짓것,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걸 구태여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류했다가 조금 늦게

나는 3월에 기본적으로 학교를 9월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교육의 ABC도 모르는 사람의 정말 독선이에요. 그렇지요 이제까지 담임했던 사람 다 헐치고 말이죠 3월에 가가지고 몇 달하다가 이걸 정말로 하려고하면 3월에 이걸 통폐합을 해야하지 않느냐, 뭐 이번 통과하더라도 실지로는 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담임제를 못 없애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거예요. 학교라는건 커서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걸 조금 그래서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충북은 맨날 쫓아가다가 명령하는 대로 하다가 손해보는 데거든요. 타도는 그런거 안 했는데 말이예요, 충북만 다 해봐 가지고서 1등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까지것, 넘겨보면 안했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타도 실정도 우리가 좀 눈치를 봐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인원이면 모을 수 있으면 뭐 좀 유보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감정적인 얘기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하는 모아올 수도 없고 또 학교 살리기 위해서 뭐 지역주민이 나가서 가지고 애들 모으기도 좀 어렵고, 이사시키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기본 정책은 귀향, 자꾸 농촌으로 가기를 가도록 이렇게 해야하는데 교육정책은 저희가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은 제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 하셨겠

지만 살펴보셔서 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왜 오늘 아침에도 보시다시피 충남 야단났잖아요. 데모하고 그런데 착한 도만 하라는 대로했다가 손해만 보는 이런 교육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통합학교, 통합학교 그러는데 통합학교에 문제가 보통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담당하시는 여기 우리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 명년에 제가 좀 요구하는데 지금 통합 운영하는 학교 있지요. 중등학교.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초·중통합. 예.

● 이충원 위원

저거는 장점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외국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아시다시피 어른이예요. 담배피우고 별짓 다해요. 연애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한교, 한울 안에다 넣고 하면 참 문제고, 축구를 한다면, 영국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입구가 달라요. 1,2학년 애들 들어오는 입구하고, 5,6학년 애들 들어오는 왜 한 곳에 섞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니까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영국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학년은 얘기를 낱아보지 않은 사람은 담임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거든요.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학교가 통합학교 되었는데 나 예산을 보니까 안나오네요. 저것도 하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 그 분야의 전공이시니까 한번 그것도 해

보고 그러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학교 또 나올 거니까.

또 하나는 지역사회 문제인데, 이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는 학생의 부모다 이런데 이것은 조금은 교육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학교를 적어도 세울 때는 그냥 세운게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이 정말로 많은 희사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없으면 국가에서 뺏아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봐서 문화센터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가 절대로 떨어져 있는게 아닙니다. 하나의 관청이 떠난다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단순히 그냥 학교가 떠났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동창, 동창 애기를 했는데 엄청난 지역사회 발전에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단순히 지금 부형의 의견만 전부 들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또하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제천소식인데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각 지역의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만나고, 위원도 만나고, 지역사회위원장도 만나고, 학교도 방문합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위원으로서 해야 할 듀티(Duty)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임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봉양초등학교가 문제인데 지금 그 공문 혹시 내려보낸 적이 있으니까, 거기 돈 얼마 주겠다고?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공문으로 내려간게 아니고요, 통·폐합 당시에 그걸 추진할 때 그 교육부에서 안낸 거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지요.

● 이충원 위원

말로만 했어요, 문서로 찾으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서류가 있죠.

● 이충원 위원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분교장이 폐지되었을 때는 2억 내지 5억, 또 본교가 폐지되었을 때는 5억 내지 7억, 그렇게 나눠져 .....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5억 내지 7억, 7억만 생각하고 저쪽에 또 뭐하니까, 위에 것 큰 자리수만 생각하신 거군요. 그렇죠?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네.

● 이충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 몇억을 준다고 했는데 .....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12억.

● 이충원 위원

12억인가, 15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로 주실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것은 기준이 아주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본교에서 본교 합치는 것은 5억, 본교가 본교로 합치는 것은 2억, 본교가 본교장으로 내려앉는 것은 2천만원이라 그건 아주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그 얘길 어디서 와전이 났겠지요.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면 큰 것만 뺏자리만 생각을 해서 교육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그걸 공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큰 것만 크게 주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5억이라는 신문만 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금년에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이번에 봉양초등학교 1억 8,700만원 되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3억으로 치고, 그러게 하고서 먼저 조건 없어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예. 먼저 조건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2억 8천 얼마예요?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7월에 올라갔습니다. 1억 8,700만원입니

다.

● 이충원 위원

1억 8,7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지금 현재 올해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내년엔 .....

● 이충원 위원

언제까지 이거 완료하실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내년 1/4분기까지 나머지 줍니다.

● 이충원 위원

나머지는 전부 주마. 또 확실해 줘야 되어서 제가 알아서 연락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교육부에서 공문 온 것은 내년도 1/4분기에 나머지 주겠다고 와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1/4분기에 그러면 토탈 얼마나 나가겠어요, 과장님?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한 학기에 본교가 합치면 5억,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지금 저기 봉양초등학교 7억 예정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토탈 합해 7억.

●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예. 7억이요.

● 이충원 위원

나 걱정이네요. 거기서는 그냥 12억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부풀어 있는데, 아마 설득이라는 것보다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봉양초등학교는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에 필요한 합치면서의 필요한 시설은 만약에 이 7억가지고 모자란다면은 거기에 하는건 저희들이 해야 될데지만 아마 뒤에 9교실 정도만 지으면 앞에 교실하고 그 교실하고 외곽시설은 다 됩니다.

● 이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것도 참 걱정이 무얼 지어주고, 교육시설을 7억원어치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7억 현금을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뭐든 원하는대로 모든 시설을 다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액수로 처음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한국사람 또 수에 대해서 봐요 보면 꼭 외우고 있다가 7억, 7억하는데 저건 제가 주민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아마 해주셔야, 그러니까 토달 명년까지 7억을 주마.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니 7억에다가 분교를 합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 3천만원하고, 분교합치면 2천만원 인가요? 5천만원은 더겁니다. 그러니까 7억 5천만원이 가게 됩니다.

● 이충원 위원

이거 7억 5천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 납득

안 같거예요. 12억만 머리에 들어가치고, 내가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걸 제가 더 줘라, 덜 줘라 할 수가 없지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네요. 드리고 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폐합은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과장님들이 관리과장님들이 지금 이걸 전부 명에를 지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참 어려우시죠. 사실은 이것은 학무과에서 지셔야하는 건데, 어찌 관리과에서 가져가서 어려움을 겪으시네요. 욕도 잡숫고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아까 이상일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설득하는 건 거기다 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꼬시는데 넘어갈 것이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간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제가는 저는 보기에 지금 과장님 어떠세요. 이제 명에 벗으시는데 진짜 이 7천이 금년 9월에 통·폐합 안하면 앞으로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난 그래 저것도 지금 통과시킬게 아니라 좀 두었다가 그 압박해가지고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을 하면서 어찌 100명, 저도 현장에 나가고 뭐 충주 MBC에 가서는 근 한시간 정도의 프로에도 제가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100명이라는

기준이 무슨 수치의 기준이나 하는 질문도 수없이 받았습시다. 어찌 꼭 100명 이상은 그 교육이 참 되어서 되고, 100명이 안되면 안되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획서 잘 적어도 80, 90명이 되어 가지고 100명 조금 떨어지고 하는 데는 앞으로 그래도 인구가 좀 늘 전망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전부 유보 시켜놓고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번 통·폐합에 들어가는 학교를 보면은 거의 6학급 유지가 도저히 안 되는 복식학급 들어가는 학교, 그 얘기는 바로 그저 60명 이내로 떨어지는 학교가 지금 있지, 6학급 유지가 되어 70명, 80명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억지로 통·폐합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하고 지역 주민들 하실 적에 물론 학부모가 쌍수를 들어서 100% 찬성한대도 여기 지역관리과장님들 계시니까 한두 군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0%내지 85% 그 선이 되었을 적에는 이 결정을 해야지 학부모가 85%정도 찬성하는데 지역의 몇몇 동창회라고 하고, 지역 유지라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기의 이해 당사자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걸 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초점을 양쪽을 다 봐가지고 그걸 조화롭게 해가지고 전부 호응이 되면 더 바랄게 없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한 80, 90%가 이걸 통·폐합을 해다오 하는데 지역의 몇몇 아까 땅 회사한 분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그 당시에 땅을 기증할 적에 마음이나 그걸 저희들이 참 받아

들이지 못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행법으로다가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 다 시라도 진작에 되돌려 주고 싶은 생각까지도 사실 있지만은 현행법으로 돌려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못 돌려주는 그 애석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폐합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참 몇 년, 15년, 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해 왔는데 학생 수 그저 저희들이 해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명 이내짜리로 했지, 아마 50명 넘어가는 학교도 크게 통·폐합한 데도 없을 겁니다.

(청 불) 만 학부모님들이 전부 옥천중학교로 합쳐달라고 그래서 거기만 자신해서 왔길래 그거 해주었지, 나머지는 그거 유지되는데 적어도 학생수 50명 넘는 데를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청 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초라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9월초로 조금 앞당긴 큰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교육적인 논리로 통·폐합을 했고, 조금 앞당기는 것은 마침 교원 명예퇴직하고 정년단축이라는 교원 수급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이쪽 9월 1일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 조금 한 6개월 그저 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 기왕에 할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교원수급관계도 좀 맞물려 들어가고 해서 풀기가 낫고, 그런 속에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도 그래서 금년



도에 하는 것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한 사항을 지금 여기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유보를 시키고, 현장에 가서 아마 학부모나 지역주민들도 이거 원하지 않으면 유보시켜 주겠다,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 다시 또 바뀌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와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린 본교 6학급 유지가 됐을 적에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적엔 그걸 다시 뒤바꾸고, 뭐 유인책을 해가지고 그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을 다시 뒤바꾸고 하려면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시켜주시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금 저희 교육감님도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요.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타지역에 타도는 어떻게 하는지 사항을 조금 면밀하게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예가 충남, 전북, 경남, 강원 다 수시로 매일 몇차례씩 이 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뭐하고 의견서로 묻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도는

이 통·폐합을 점진적으로 꽤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훨씬 지금 부딪치고 있는 곳이 충남입니다. 충남은 2백 몇 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느 도보다 이걸 뭐 1등 하려고 절대 이런 것 가지고 1등 하려고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또 생각하시면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니까 평가 1등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기왕에 학교가 유지가 3,40명 가지고 안되는데, 이걸 저희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유리한 좋은 시설과 통학버스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끝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충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보다도 하나 참고가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통합기준이 학생수 100명, 또는 6학급 유지, 또 1면에 1교씩은 유지한다. 또는 지역주민에게 있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서부터 2002년까지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통·폐합을 할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통·폐합한 학교의 장·단점이라든지, 또는 그 통·폐합 했을 경우에 어느어느 점이 참 장점인지, 단점인지 알 수 있게 학술적으로

좀 연구·검토해 갖고서 이 교육부에서 그때그때 이용한 지침기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걸 정말 뒷받침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업무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본다면, 있을 경우는 이게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도 통·폐합 요소가 이 학교는 이 지역은 통·폐합하는 것이 좋을테고, 그쪽 지역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을 안했다 이런다면 앞으로 계속 말입니다. 이걸 지역에서 반대한다든지 하면 지역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일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지역정서를 감안해 가지고서 그쪽은 동의한다 이걸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걸 갖고서 축쇄가 되어 갖고서 앞으로 통·폐합하는데 전부 반대하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더 진척도 어려운 얘기니까, 이외에 지금까지 통·폐합한 학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시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거다 이거다 해서 지금 100명선이라는 것도 그것도 저도 참 의문이 가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이따가 듣겠지만은 명수에 대한 기준이라는게 어떻게 100명이나, 90명이나, 80명이고 이런 묘한 인원관계 이런걸 이렇게 위 지침만 받지 말고 충북교육청 자체에서도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이런 프로젝트를 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주문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 장·단점을 근무하는데...(청불)...

● 이충원 위원

나도 추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해 봐야겠네요? 아까 김과장님 내가 여쭙보려고 그랬는데, 그 한송같은 데는 굉장히 연구 많이 하대요, 보니까. 통합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분교장의 장점·단점 이런걸 조금 전공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좀 얻어서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하면 말이지 상당히 순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요.

통합하는데 굉장히 교장선생님들 열의가 대단하더라구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학교의 장점·단점 뭐 연구 그것은 우리 김천호과장님이 앞으로 그쪽에 어느 정도 2년차가 되었으니까 아마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송초등학교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학생수가 몇 명이나 하면 중학교가 24명입니다. 3학년 24명, 초등학교는 6학급에 55명입니다. 이게 만약에 별개의 학교로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 중학교는 벌써 없어야 될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면민들은 제가 가보고, 교육적인 장·단점 그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초·중 통합을 하기를 잘했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든, 이게 그냥 중학교 24명 가지고 중학교 유지시켜 주었겠느냐, 이거 벌써 없어 졌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치고 5개의 교수, 우석대학의 최준열교수가 지금 팀장으로 있어 가지고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하고 중소규모 학급관계 연구해서 8월말까지 아마 이게 연구가 되고, 금년말 정도면 저희 여기도 다녀갔습니다. 한송초·중학교 다녀가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연구가 되어서 전국적인 통·폐합학교, 또는 초·중통합 학교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올 것이고, 지금 저희 도에서도 2년차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국 쪽에서 한번 짚어보고 해야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말씀은 왜 그런가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이 수긍을 하게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게 없이 지금 통·폐합을 하니까 자꾸 강제성을 띄어 놓은 것마냥 하여 반발을 해서 과장님들이 혼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초적으로 그게 되고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게 내년 3월 1일자 되면 수산초·중학교가 초·중통합이 되고 심지어 탄 면소재지에서도 그쪽 모델을 보고, 실제한 것을 보고는 면소재지의 초·중 통합을 원하는 면지역이 지금 몇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의심나는 것이 한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제시한 바에 의하면은 본교 폐지학교에 1억 2천, 분교 폐지학교에 6천, 또 분교장 폐지학교에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폐지학교 5억 주는 것하고 별도로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2002년까지가 아니라 금년 9월 1일자에 폐교되는 학교는 본교·분교 합치는 건 5억, 분교가 본교로 합치면 2억, 분교장 격하는 2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세워 주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 할 것을 얼마가 나와야지 맞나하면 143억이 와야 됩니다. 143억이 아까 그 32개의 본교, 분교 폐지하면 143억이 와야 되는데, 143억은 주겠다 그래서 교부예정통지는 왔습니다. 정식 공문은 오면서 이것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5천억이 전국적으로 있어야 된답니다. 5천억이 다 없으니까, 일부만 있으니까 재경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우선 5억 준다는 것 중에서 1억 2천, 2억 준다는 것 중에서 6천, 2천만원 준다는 것에서 1천, 이렇게만 금년에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합쳐서 온게 20억입니다. 저희한테 온게. 20억 중에서 아까 하려다가 안한걸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14억이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따 예산쪽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공문에 .....

(제103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손만재 위원

제가 착각을 한게 교육부에서 주는 게 5억이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다가 주는 것이 1억 2천, 그렇게 하면 6억 2천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게 5억 속에 다 들어가네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5억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5억에다가 플러스(+) 3천, 지난 3월 1일 할 적에 3천씩 다 줬습니다. 이번에도 9월 1일 자 하는 것은 3천, 2천, 1천 다 그건 별도로 넣어서 전체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들께서는 본 조례안 심사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한 다음, 7월 1일 10시에 2차 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0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천교육청 관리과장 표순성,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연희지,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문지성, 영동교육청 관리과장 음영호,  
진천교육청 관리과장 김장한, 음성교육청 관리과장 신건환,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김석환.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설명자료 : (별첨2)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7월 1일 (목요일) 10시 12분

## 議事日程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소위원회)

-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0시 13분)

● 위원장 이기수

제1차 소위원회에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였

으며, 어제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충원 위원

발언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제가 통과되었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통과하는데 방해적인 요인이 될까 봐 그러는데 두가지만 시행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9월 초하루에 하는 학기중간에 통·폐합하는 것은 조금은 좀 교육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는 것은 조금 이견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좌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통·폐합하는 것은 어떤 통·폐합하는 데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이번 회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네, 그렇요.

● 총무과장 이기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일자 학기중에 통·폐합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학년말에 3월 1일자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통·폐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는 교육부에서 국고나오는 것은 이번 9월 1일자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부장관님 오셨을 적에도 제가 직접 건의사항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재경부하교의 재원문

제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확실한 답변은 안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어떤 저거를 해서 뭐 의회의 명의로도 괜찮고, 금년 9월까지 국고보조를 하는데 보조해 준다고 하는 거, 그건 제가 보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야 이 정책적으로 그 일관성이 있지, 내일도 제가 본회의 때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교육정책에 참 욕하고 싶은 겁니다. 내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먼저한 놈만 손해보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대개 알아 들으셨잖아요. 먼저 장관께서는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장관께서는 말이죠. 난 장관께서라고 하는 말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반응을 느껴요. 참 그럴수 있나.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 시행청, 지방 시행청만 공연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게 된다. 그래서 이 정말 정책을 입안하는 장관께서도 상당히 신중하셔야 하지만은 우리도 조금은 남의 것을 살펴보고서 어떤 방향결정을 하는 게 참 좋겠다. 제가 충남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건 오늘 연락을 안해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뺐더니 그것이 존속하고, 또 안 뺐친 데는 이렇게 되면, 아니 어제 두군데 가본 데는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가봤더니 교육적으로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가, 어떤 학교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까지 딱 나왔어요. 몇 년도에 몇 명, 몇 명, 몇 명,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것이니까 몇 명이 더 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그대로라고 보면, 그대로 믿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커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또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신증을 기하셔서 조금 저희와 함께 이것을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말씀을 제가 두가지 통과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이따 심사보고서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내일 저희들 요구사항이 아마 .....

● 총무과장 이기수

앞으로 통·폐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 도도 해나갈 것이고, 저희 도가 타도보다 훨씬 강하게 더 많이 통·폐합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방금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좌석에 나눠드린 심사보고서 초안을 의안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안담당 심사보고서 초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먼저 참 학교이전명의변경 그것도 같이 들어간 것이지요?

● 위원장 이기수

네,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 의안담당 연승흠

의안담당 연승흠입니다.

심사보고서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3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주요내용을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할 때는 1차 소위원회하고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셔서 가지고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서함으로써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본

(제103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교의 분교장 개편과 지역주민 요구에 의한 교명변경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정히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향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통·폐합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학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타 시·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과 기 통·폐합된 학교의 운영상황 등을 연구·분석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년 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여 가급적 학년초에 통·폐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 김광수 위원

여기에 들어 있네요.

● 이충원 위원

글쎄요.

● 위원장 이기수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함과 아울러 본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충원.

○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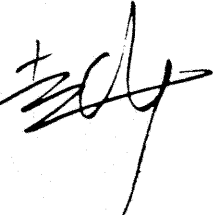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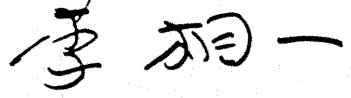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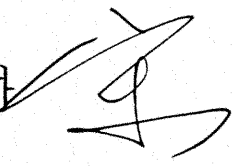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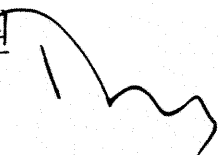
※ 부 록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3)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7. .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위원	손만재	
위원	송진하	
위원	이충현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 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6. 29 (화) 15:00~	[제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9. 6. 30 (수) 10:00~	[의안관련 현장방문] 충주 수상초등학교 청원 유리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괴산 광진초등학교	
1999. 7. 1 (목) 10:00~	[제 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폐회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설명자료

충청북도교육청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제천교육청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 부 모 의 건
공전초등학교	본교폐지	40	4	8	통학버스 지 원	○ 복식수업의 폐단과 초등학교 동문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조기 통폐합에 찬성
봉양초등학교 봉남분교장	분교장 폐 지	23	3	3	통학버스 지 원	○ 복식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조기 통폐합 찬성

계획 변경학교 현황 : 해당없음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부모 의견
삼산초등학교 중초분교장	분교장 폐지	29	4	5	통학버스 지원	○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본교로 통합 희망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분교장 폐지	24	3	4	통학버스 지원	○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수한초로 통합 희망 (수한면 1면 1교 유지)

계획 변경학교 현황 : 해당없음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옥천교육청

### □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 부 모 의 견
지탄초등학교	분교장 개 편	47	5	7	기존과 같 음	○ 분교장개편에 찬성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장	분교장 폐 지	32	3	3	통학버스 지 원	○ 분교장폐지에 찬성

### □ 계획 변경학교 현황 : 해당없음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영동교육청

###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 부 모 의 견
용암초등학교	본교폐지	37	4	6	통학버스 지 원	○ 대부분 학부모 통폐합에 찬성
범화초등학교	본교폐지	35	5	7	통학버스 지 원	○ 대부분 학부모 통폐합에 찬성
학산초등학교 봉산분교장	분교장 폐 지	38	4	5	통학버스 지 원	○ 대부분 학부모 통폐합에 찬성

### 계획 변경학교 현황 : 해당없음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진천교육청

### □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부모 의견
한천초등학교 두촌분교장	분교장 폐지	19	3	3	통학버스 지원	○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통합 요구

### □ 계획 변경학교 현황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추진유형		변경사유
				당초	변경	
문상초등학교	61	6	11	분교장개편	분교유지	○ 6학급 유지와 지리적 여건을 들어 학부모 및 주민 반대
구정초등학교	59	6	10	분교장개편	분교장개편	○ 지역적 특수성을 들어 학부모 및 주민 반대로 2001년까지 개편시기 연기

### □ 기타 참고사항

#### ○ 구 정 초

- 행정구역이 진천군 초평면임에도 지리적 여건상 생활권은 괴산군 증평읍으로  
분교장 개편시 본교를 삼보초로 지정 요구
- 구정초에서는 관내 오상분교장(4학급, 37명)과 통합 후 본교 유지를 희망하나,  
양 지역간 갈등으로 통합 반대
- 지속적인 설득으로 복식학급 운영시 분교장 개편 추진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여성교육청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 부 모 의 견
상평초등학교	분교장 개 편	39	4	8	기존과 같 음	○ '99. 9. 1.분교장개편후 2000. 3. 1. 감곡초로 통폐합에 찬성
원남초등학교 문암분교장	분교장 폐 지	26	3	4	통학버스 지 원	○ 원남초로 통폐합에 찬성

계획 변경학교 현황 : 해당없음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충청북도단양교육청

### □ 정상 추진학교 현황

학교명	추진유형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통학대책	학 부 모 의 건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분교장 폐 지	23	3	3	통학버스 지 원	○ 본교 적응을 위한 사전 적응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
상진초등학교 적성분교장	분교장 폐 지	17	3	3	통학버스 지 원	○ 본교 적응을 위한 사전 적응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상진초로 통합되기를 원함)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분교장 폐 지	12	3	3	통학버스 지 원	○ 본교 적응을 위한 사전 적응 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

### □ 계획 변경학교 현황 : 해당없음

## '99.9월 통폐합학교 확정(안)

구분	당 초 추진유형	대상학교 현황				통합학교 (학교장개편명)	확 정	비 고
		학 교 명	소 재 지	학 생	학 급			
충주	분교폐지	수상초	노은면 안락리 119	42	4	노은초-수상	분교장개편	지역정서 고려 분교장개편
		가흥초	가흥면 가흥리 582	64	6		계획 유보	지역정서(6학급) 고려 분교 유지
	분교장폐지	새성초-공미	살미면 공미리 448-1	9	2	새성초	분교장폐지	
		동량초-서운	동량면 서운리 155	11	2	동량초	분교장폐지	
	통합운영	가금초	가금면 탐평리 212-1	70	6		계획 유보	지역정서상 통합운영 곤란
		중앙중-가금	가금면 가흥리 361-7	50	3		계획 유보	지역정서상 통합운영 곤란
소계	분교장폐지 2교, 분교장개편 1교(3교)							
제천	분교폐지	공전초	봉양읍 공전리 265	38	4	봉양초	분교폐지	
	분교장폐지	봉양초-봉남	봉양읍 마곡리 540	23	3	봉양초	분교장폐지	
	소계	분교폐지 1교, 분교장폐지 1교(2교)						
청원	분교폐지	구성초	북일면 구성리 265	46	4	수성초-구성	분교장개편	지역정서 고려 분교장개편
	분교장폐지	옥산초-호죽	옥산면 호죽리 300-3	22	3	옥산초	분교장폐지	
	분교장개편	도원초	문의면 두모리 243	56	4	문의초-도원	분교장개편	
		외천초	부용면 외천리 294	71	6		계획 유보	지역정서(6학급) 고려 분교 유지
		소로초	옥산면 소로리 313-1	51	5	옥산초-소로	분교장개편	
		가좌초	오창면 가좌리 129	42	5	오창초-가좌	분교장개편	
		유리초	오창면 유리 394	60	5	오창초-유리	분교장개편	
		소계	분교장폐지 1교, 분교장개편 5교(6교)					
보은	분교장폐지	삼산초-동점	수산면 동점리 20-1	21	3	수한초	분교장폐지	
		삼산초-증초	보은읍 증초리 408	29	4	삼산초	분교장폐지	
	소계	분교장폐지 2교(2교)						

## '99.9월 통폐합학교 확정(안)

구분	당 초 추진유형	대상학교 현황				통합학교 (부교장개편)	확 정	비 고
		학교명	소재지	학생	학급			
옥천	부교장폐지	청성초-화성	청성면 화성리 295-1	31	3	청성초	부교장폐지	
	부교장개편	지란초	이원면 지란리 754-1	47	5	이원초-지란	부교장개편	
	소계	부교장폐지 1교, 부교장개편 1교(2교)						
영동	부교폐지	용암초	황간면 용암리 642	40	4	황간초	부교폐지	
		법화초	하산면 법화리 748-1	35	4	하산초	부교폐지	
	부교장폐지	하산초-봉산	하산면 황산리 563-1	34	4	하산초	부교장폐지	
	소계	부교폐지 2교, 부교장폐지 1교(3교)						
진천	부교장폐지	한천초-두촌	덕산면 두촌리 100	20	3	한천초	부교장폐지	
	부교장개편	몽삼초	문덕면 사양리 38-1	57	6		계획 유보	지역정서(6학급) 고려 부교 유지
		구집초	초평면 용산리 236-1	62	6		계획 유보	지역정서(6학급) 고려 부교 유지
	소계	부교장폐지 1교(1교)						
괴산	부교장폐지	백봉초-장암	청안면 장암리 401	18	3	백봉초	부교장폐지	
	부교장개편	광진초	장연면 광진리 814-1	39	4	장연초-광진	부교장개편	
	소계	부교장폐지 1교, 부교장개편 1교(2교)						
음성	부교장폐지	횡남초-등암	횡남면 등암리 593	27	3	횡남초	부교장폐지	
	부교장개편	상평초	감곡면 상평리 344	40	4	감곡초-상평	부교장개편	
	소계	부교장폐지 1교, 부교장개편 1교(2교)						
단양	부교장폐지	단양초-금곡	단양읍 기촌리 107	23	3	단양초	부교장폐지	
		영춘초-동대	영춘면 동대리 806	11	3	영춘초	부교장폐지	
		삼진초-적성	적성면 하리 59	17	3	삼진초	부교장폐지	
	소계	부교장폐지 3교(3교)						
합계	부교폐지 6						부교폐지 3	
	부교장폐지 14						부교장폐지 14	
	부교장개편 10						부교장개편 9	
	통합운영 2							
	32개교						26개교	

(별첨 3)

(제103회 임시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7.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 목 차

1. 심사경과 .....	43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43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45
4. 토론 주요내용 .....	45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45
6. 심사결과 .....	46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46
8. 기타 필요한 사항 .....	46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29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6월 29일(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6월 29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7월 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개정사유

- 파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개편
-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신설학교 교명 변경

나. 주요골자

- 파소규모학교 통·폐합
  - 본교폐지(3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공전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265번지	'99. 9. 1.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용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2번지	'99. 9. 1.	·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범화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99. 9. 1	·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 분교장 폐지(14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세성초등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99. 9. 1.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동량초등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99.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li> <li>·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li> </ul>
봉양초등학교 봉남분교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540번지	"	
옥산초등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	
삼산초등학교 중초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	
학산초등학교 봉산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	
한천초등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	
백봉초등학교 장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	
원남초등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	
단양초등학교 금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	
상진초등학교 적성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	
영춘초등학교 동대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	

-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9교)

명 칭	개편후 명칭	위 치	개편년월일
수상초등학교	노은초등학교 수상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99. 9. 1.
도원초등학교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
소로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
가좌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
유리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
구성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구성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
지탄초등학교	이원초등학교 지탄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
광진초등학교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
상평초등학교	감곡초등학교 상평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

○ 교명변경(1교)

변경전교명	변경후교명	위 치	변경사유	비 고
죽전초등학교	진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택지개발지구내 2-2BL	주민들의 건의	'99. 9. 1 개교예정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본교의 분교장 개편과 지역주민 요구에 의한 교명변경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집행청에 당부드릴 사항은 이미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향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서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통·폐합의 추진보다는 대상 학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타 시·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과 기 통·폐합된 학교의 운영상황 등을 연구·분석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년 중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여 가급적 학년초에 통·폐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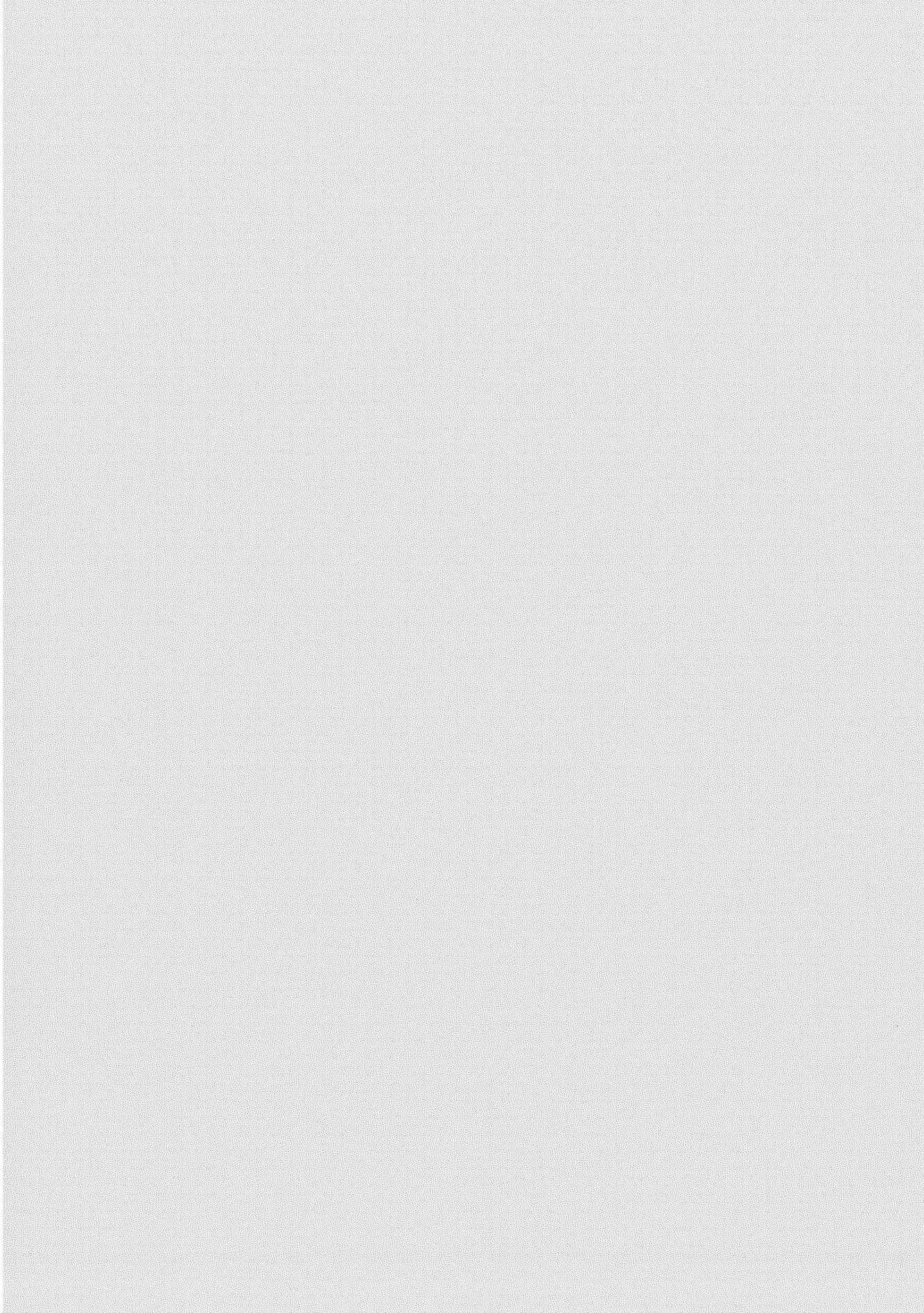
第10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 '99.6.29 ~ 7. 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 I.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3
- II.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27
- III. 부 록
  - 1. 의사일정(안) ..... 59
  - 2.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6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6월 29일 (화요일) 16시 31분

## 議事日程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31분 개회)

(16시 31분)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소 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김광수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김광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김광수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임무와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2. 간사선출의견

(16시 33분)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저 손만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또 안계십니까?

방금 이상일위원님으로부터 손만재위원님이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만재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손만재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견

(16시 35분)

●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7월 1일 2차에 걸쳐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  
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36분)

●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이어서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기획관리과장으로부  
터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  
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  
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위원회부터는 지난번은 그냥 저  
희들이 개요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내용을 좀 확실히 파악하시  
기 좋게 각 사업을 전부 설명서를 붙여서  
그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리 보  
셨으면 여러가지 내용이 상세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예산추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  
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기획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 좌석순에 의하여 각 위원  
님 별로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의 방법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순에 의해서 손만재위원님부  
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손만재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우선 질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번에 행  
정질의를 할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소프  
트웨어 정품 구입비를 7억 3천만원 계상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이 교육용이 대부분 되었으면 했는데 이게  
업무용으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시고, 교

육용도 일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교육용도 좀 많이 예산을 할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 말씀 드리는 것은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하실테니까, 7월 1일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일선학교 교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을 교육의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때로 저하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어떤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일선학교에서 가장 여론이 비등한 점들을 몇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5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의 교감 미배치에 대한 불만, 수행평가에 대한 불만, 각종 연수때 일부 자격연수, 뭐 교장·교감 일정 이런 일부 자격연수를 제외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꼭 필요해서 상치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년 이런이런 연수를 받아야 해서 지명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도 지금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1월에 전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연수를 받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그런데 이 사람들이 8월초까지 연수를 받고 나오면 다시 승진자 명부를 혼합

해서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지방 일선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게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존에 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받은 사람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경영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게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선학교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또 여론이 나쁜 것을 전부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그중 몇가지만 예시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평가는 신뢰감을 주지 못했고, 중앙통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교육부측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폐단이 많은 이 직·간접적인 학교평가, 교육적 평가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번 질의는 국내 차임금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교

원이 급증하여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되는데, 기편성된 예산과 금회 차입금을 합하면은 무려 749억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749억 .....

● 손만재 위원

749억 몇천만원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손만재 위원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부담금에 대하여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 말씀은 계셨는데 교육부에서 뭐 이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이 막대한 예산을 차입을 해서 이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 이런 것이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명예퇴직신청자중 6월 30일까지 이를 철회하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명예퇴직신청을 취소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이 인원이 다시 말해서 신청을 취소한 인원이 많다고 하면은 차입금을 줄여서 차입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장·교사의 정년퇴직 후 초빙계약 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자

새교육신문과 동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의하면 일부 교장과 교사를 초빙계약 임용토록 교육부에서는 확정, 6월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를 소집, 점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장 및 교사를 초빙계약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면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명예퇴직자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계획서 입상학교가 초등 43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6개교 등 7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문화창조의 조기 정착과 학교교육계획의 실천을 위한 특별지원금 3억 7,3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만 우수하다고 지원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획서는 우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경영이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계획서가 우수한 학교에 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 후에 계획대로 학교교육이 실천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수가 4,461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이들 학생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장들의 말에 의하면 중식지원 대상으로 교육청에 보고한 인원에 2분의 1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모두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면 반으로 감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반을 줄여서 선정한 것인지. 학교장이 보고한 인원수의 반밖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을 학교장이 학교자체로 이 학생들을 급식을 시키느라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자체로 급식을 시키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교육연구회 조직현황에 대해서, 또 연구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산하 교과교육연구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교과교육연구회의 수와 이들 연구회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에 있어서 자금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기정예산은 8,800여만원인 것이 이번 추경에는 무려 16억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초등학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보다 지원금이 월등히 많이 배정된 사유,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월등히 많이 배정이 되었는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지원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고보조로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가 40명 배치되었는데, 지역교육청별 배정인원을 보면은 청주교육청 25명, 충주교육청 7명, 제천교육청이 4명, 기타 4개 교육청은 1명씩 배치되었고, 영동교육청, 보은교육청, 단양교육청, 청원교육청은 배정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지도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선교직원 사기를 높여 주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6월 1일자 동양일보에 저도 나름대로 '선생님 분노를 푸세요'하는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으로 장학지도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하셨다면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지도 때 다수 교직원의 건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교육청에서 문제해결의 방안이 나오면은 이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 주셨는지, 그 통보하여 주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시하는 방법은 다수 교직원의 건의를 현장에서 또는 사후 처리실적

이 있으면은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서 잘된 것 3가지씩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 말씀은 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업계획과 예산책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의 적기 임용을 위한 추가 신규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예산책정에 대하여 질의 드리면 당초예산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5천만원 사업계획에 3,400여만원이 사업차질이 났습니다. 이는 당초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으면 당초예산 계획대로 지출했어야 되는데, 3,400여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제시는 7월 1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 손만재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나가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7월 1일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7월 1일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예.

● 위원장 김광수

7월 1일에 서면으로 해주실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직접 답변해도 되는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송진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교육위원 송진하입니다.

어떻게 의장님 그럼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듣도록 해요, 어떻게 해요?

●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해야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렇게 하시지요.

● 송진하 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에 있어서 7억 3천만원은 업무용으로 이번에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복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송진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써도 괜찮다는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좀 양해를 한다 그럴까, 점진적으로 해도 좋겠다 뭐 그렇게, 괜찮다하는 언질을 받았습시다.

● 송진하 위원

나중에 답변은 일괄답변을 해주시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송진하 위원

두번째로 로울러 스케이트장, 체조경기장, 진천농고 복싱경기장 해서 약 1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의 형편으로서는 10억이라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인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송진하 위원

문화체육부라든가, 도체육회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봤는지, 하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통·폐합 학교의 지역별 교육청의 예산을 배부를 하셨는데, 거기 3개 교육청에서는 교재교구를 확충한다 해가지고 약 1억 좀 넘는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폐합하는데 교재교구를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충주를 예를 든다면 공이분교가 2학급, 서운분교가 2학급씩, 세성초등학교도 동량 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동량으로입니다.

● 송진하 위원

동량으로, 그러면 그 학교의 분교장에 있

던 교재교구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인데, 오히려 남을 거란 말이에요. 본교에 있는 학급수하고 가져가는 2학급 분하고 하면 남을 것인데, 필 확충하느냐 이겁니다. 폐지되는 학교에서 통합하는 학교로 뭐든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서 다른 학교에 줘도 되는데 살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그 교재교구를 사는 것보다는 교실이 남으면 그 남는 교실을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준집단 교육활동을 하도록 2, 3, 4개 학급이 같이 동시에 교육활동을 하도록 한다던가. 2중창을 교체를 해서 추위를 막아 준다던가. 급식소 내부시설을 위생적인 시설로 바꿔 준다던가. 교내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즐겁게 놀수 있도록 한다던가. 양호실 지금은 보건실이라고 그러대요. 보건실을 완비를 해서 건강이 나쁜 어린 학생들은 가서 좀 푹 쉬도록 이렇게 해 준다던가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질의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송진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이번에 업무용은 100%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은 그러면 무단복제 한걸 그냥 써도 괜찮으나. 그런데 먼저 공식적인 서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도



와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하려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겠다. 저희가 이걸 다 조사해 보니까 26억에서 28억이 들어갑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용까지 다 하나니까. 그래서 업무용부터 학교는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은 되도록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본청은 이것은 어떤 수가 있어도 업무용부터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암암리 이런 쪽으로 해서 양해를 얻고 우선 업무용부터 해결을 하고, 내년에 교육용 일부 해결하고, 또 후년에 해결하고 하는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장 시설에 한 10억이 투자되는데 문화체육부나 도체육회로부터 예산투자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참 차지하고, 소년체전 출전비도 몇 년째 그걸 좀 지원해달라고 수십 번 얘기를 해왔고, 심지어 지난 제주도 소년체전 때는 그 지원경비, 훈련경비를 안 해주면, 여기 사회체육과장님 안계십니까, 체육과장님 말씀을 좀 하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송진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연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더 올라와서 경기장이 금년도에 시범경기에서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각 시·도가 이구동성으로다다다 핑장히 추세로다다 두개씩 지금 거기 신설할 형편이고, 주요경기장은 저희들이 낙후된 청주여고에 강당을 지금 빌려

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주여고 학교에서나 학생들이 왜 우리 강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다 사용한다고 해서 불평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간이 경기장이라도 해서 청주여고 학생들한테 강당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

● 위원장 김광수

아니 과장님 방금 송진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문체부나 그런데서 보조할 수가 없을 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 답변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 오셨을 적에도 말씀을 건의 드렸습시다만 금년도에 7월까지 각 시·도에서 5억씩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소년체전 출전비의 장비비가 우선 부족하고, 충청북도 같은 데는 학교가 연약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5억은 안돼도 한 3억 정도는 우선 그것이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비, 출전비, 훈련비로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문화관광부에서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다음에 통·폐합 학교의 .....

● 위원장 김광수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송진하위원님이 묻은 것은 된다, 안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문화관광부에서 로올러스케이트 경기

장으로 보조한 것은 아니고, 장비비로다가 지원은 좀 될 것 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5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해 봐야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고맙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통·폐합 학교의 교재교구를 확충하는 것은 있는 데의 것을 가져가면 더 많을 것인데 어찌 교재교구를 확충하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5억 중에서 1억 2천, 또 2억에서 6천 쪽은 지역교육청에서 자금배정을 해주고 통합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교실이나 특별교실이 충족이 되는 학교는 외곽시설을 안하고 이걸 가지고 학생 컴퓨터라든지, 먼저 교단선진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판 시설을 하는 쪽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외곽시설은 괜찮으나 했더니 아마 수업이나 특별교실이 다 충족이 되어서 그쪽으로 요구를 해와서 그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이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감독청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용과 업무용 전부 26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해서 7억 3천만원을 구입하고, 또 예산업무 전산화하기 위해서 DB프로그램을 1억 1천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져 있어요. 그런데 26억이라면 큰돈인데 앞으로 지금 교사들이 컴퓨터를 전공한 선생님들도 있고, 인력이 많을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26억을 전부 구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걸 뭉니까, 연구점수를 준다든지 여러가지 혜택을 인사 혜택을 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고, 또 지금까지 예산업무를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을 팔 적에 전부 손으로 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DB 프로그램 1억 1천만원 구입한다고 했는데.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저기 예산업무는 지금까지 컴퓨터로다가 우리가 해왔어도 이 코드번호 자체가 지금같이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니고, 앞으

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초등학교시설비 해가지고, 그 코드만 그냥 버튼하나만 누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교육시설이 좌악 나오고 그렇게 되도록 이게 체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을 교육부에서 전국 것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걸 분산시키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 자체로 이걸 개발한다 그러면 몇억이 될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같이 있다가 일괄질의하고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방채 이자가 7억 948만 9천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명퇴수당을 주기 위해서도 349억, 이번에 또 우리한테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790억 해서 전체 우리 충북교육청이 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이며, 이렇게 된다면 이것 한 건에 대해서 지방채 이자만해도 7억 900인데 1년에 소요되는 이자부담이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따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광수

일문일답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 이기수 위원

일문일답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두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용은 좀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하면 좋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는 어느 도보다도 더 저쪽 학생회관의 정보화관이나 지금 과학교육연구원의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복사하고 하는데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걸 제외해 놓고도 기히 우리가 남의 것을 갖다 쓰고 있는게 지금 합치니까 26억 된답니다. 이것은 쓰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체해야 될 것은 하고, 지금 말씀대로 자체개발하는 것은 자체개발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이 덜 나가도록 그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잖아도 그 말씀이 저희들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빚 750억 정도가 먼저 400억하고 이번에 349하고 하면 7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다가 교육부에서 서류로 몇년, 몇년 갚아 주겠다 이렇게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하고 이것에 대한 원금을 앞으로 증액교부금을 교부를 할 적에 이걸 갖다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러합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정도 나가느냐하면 약 1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방채는 거기에 포함되게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지방채 포함해서입니다. 750억은 먼저 400억이고 이번에 350억이고요. 그리고 재특은 6.5%고, 농협에서는 8.25%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아까 손만재위원님도 질의하셨

지만 저희들이 정식식 그걸 차입을 해올 적에는 명퇴수당 지급하는 것 봐가면서 만약에 철회자가 많아 가지고 적게 소요가 되면 그만큼 덜해오면 됩니다. 승인은 이렇게 받았어도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나중에 실제 빌려오는 것은 적게 빌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교단선진화 해서 경덕초하고 죽전초, 남평초등학교 이게 새로 개교하는 학교인데, 이거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없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명퇴 때문에 하계끔 기회가 되었으니까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이걸 오래전서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예산들인 것 같고, 그런 것이 또하나 일반직 명예퇴직자가 3억 3천만원이 또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33명에 대한 퇴직자에 대한 조사를 언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도 없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일반직 명퇴는 지금까지 그것도 보류하고 안해오다가 과원이 생기고 나서 이것을 9월 말일자 한번 시킬 예정이고, 또 12월 말일자 시킬 예정이고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으니까 그렇게 좀 나와 가지고 지금 부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족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세워놔야지 대체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워놔고, 아까 말씀하신 경덕초등학교하고 교단선진화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적어도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것은 잡아 놔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금년도의 교단선진화는 교당·급당 얼마씩 한 것이 아니고 부족 수를 주욱 뽑아 가지고 그 부족 수만큼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학급수 증감되는 것을 따져 가지고 청주교육청하고 저희 초등교육과하고 이걸 따져 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그만큼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걸 카바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카바가 안돼가지고 또 새학기는 열렸는데 그 교단선진화 다른 학교는 다하는데 안해 줄 수도 없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만큼 따져가지고 책정해서 넣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상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잘못 드리면 어떤 지역에 편파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분명 제가 충북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기본상식을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

다. 예산배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은 바란스가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교육청별 추경내역을 보면 청주가 약 25억, 제천이 6억 9천, 청원이 5억 1천, 보은·영동·옥천이 다 4억, 5억 수준인데 거기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학생수도 많은 충주교육청의 추경 증감액이 4억 7,9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된지,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이거 세입·세출 설명자료 73쪽에도 보면은 지역교육청 재원배분내역 그래가지고 주옥 있는데 충주에는 중앙중학교 교실균열, 바닥몰탈 2천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도 비가 샌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충주는 배분이 잘 안되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아까 그 로올러 스케이트장하고 체조경기장하고 이런거 좋은데 그런 시설도 서로 지역간에 배분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남산초등학교 아마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교육감님도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게 왜정시대 저희들 어릴 때 지어진 강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남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예성여중 학생들까지 체조, 옥상 거기서 쓰고 있어요. 아주 유리가 다 깨지고, 과장님 갔다오셔서 진단결과 사용불가라고 하는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판정불가가 되었으면은 강당은 교육부에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다목적교실이라는 이름

으로 거기도 어떤 그런 신축방안은 없는 건지. 그냥 못쓴다 그래 놓으면 그 아이들 체조나 옥상 애들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충주같이 시설 좋고 뭐 그런데만 체육이라든지 그런게 옥성이 되지 이 지방에 좀 떨어져 있는 데는 그게 안되면은 특기자나 우수 학생들이 자꾸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말씀. 제가 간단 간단하게 네가지다 질문 드린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소식지 구독료로 1,432만 6천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비매품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교육부에서 오는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돈 내야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돈 내야되는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거기 꺾데기에는 비매품으로 써있는데,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저희가 돈 다 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오는 것은 탄 것을 봤는지 거기 비매품 그렇게 써놨던데.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 그게요. 받아보시는 분이 돈을 안내

고 저희가 다 물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들한테는 저희가 .....

● 이상일 위원

그런데 거기다 비매품이라고 써요. 그건 말이 안되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교육부에서는 계속 지역교육청에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우리한테 부담하면서 우리한테는 공짜로 준다 그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독서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되고 21세기는 지식국가 기반을 세우지 않으면 선진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요새 보충수업, 자율학습 다 못하게 하는데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게 책읽는 것인데, 학교나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컴퓨터 많이 사주고 교단선진화하는 작업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학생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확충할 계획은 좀 없는지. 또 아이들이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책, 좋은 책 이런 것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자신도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런데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본청의 실·국장님들 일본에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일본 사람

들이 얼마나 책 많이 읽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의 습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도서구입비를 대폭 좀 확충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는데 교원단체활동지원업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교원노조 연수강사를 초빙해서 뭐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공인노무사 초빙강사를 해가지고서 뭐 하는 것 그런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물론 7월 1일서부터 교원노조 합법화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노조연수까지도 강사를 데려다 해야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어찌 지역교육청의 재원배분이 지역교육청 규모에 비해서 어찌 불균형하냐 이 말씀이신데, 먼저 당초예산이나 먼저 1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의 학생수나 또는 교원수, 또 시설규모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해 올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지역청별로 큰 데는 많이 가고, 작은 데는 작게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이 사업내역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온다든지, 또는 보조금이 온 사업을 그걸 받아다가 지역교육청에 쪼개 넣다 보니까 사업을 책정해서 쪼개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연구지정학교가 많은 교육청은 그게 많이 돌아가고, 그런 목적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충주가 조금 그런 비율에서 적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도 이것은 어떤 당초예산 같이 전체 몇백억을 가지고 기준 수치를 낸 것이 아니고, 그간에 불요불급한 시설사업 요구를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 예비비를 재원을 돌릴려고 하는 재원범위 내에서 이걸 긴급 우선 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이 사업책정을 하다보니까 충주같은 데는 2,600만원 들어가고, 청주는 특수시설이 드니까 많이 들어가고, 괴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역은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에 여기는 103억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가서 다른 지역보다는 또 확실히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천교육청은 이때 53억이 들어갔고, 그럼 제천교육청에 비해서 충주교육청은 약 배정도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전체예산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시고, 이번 2회 추경만 가지고 하면은 충주지역이 타지역 교육청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초등학교는 저도 가봤습니다. 이 강당은 저희가 몇천만원 아니라 1억, 2억 들어서 수선이 가능하면은 수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진이 가서 보고, 누가 봐도 이걸 도저히 헐어야지 쓰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억, 3억, 4억이고 가지고 경량철골로다 거

기다 해서 강당을 하게될 수 있다면은 그러나 남산초등학교는 거기서 종합적인 의견이 제대로 된 강당을 여기는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때 거기 학교운영위원장님도 나오시고, 동창회장님도, 교장선생님도 기왕에 그러면 여기 제대로 된 강당을 짓자, 그럴려면 우리 도비를 전체 투자할 수는 없으니 거기 출신이신 외무부장관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가서 특별교부금을 한 6억 8천만원, 다목적 교실로라도 한 5억, 6억이라도 얻어오면 거기다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태가지고 제대로 좀 교실을 짓자, 아니 강당을 짓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쪽으로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남산초등학교는 역사도 있고, 또 지금 체전선수 훈련장으로 봐서도 그 강당이 제대로 된 강당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소식지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고, 세번째 도서구입비를 앞으로 더 확충할 의향이 없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학교에 앞으로는 내실적인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어서 빈 도서실이 아닌 그래도 제대로 진, 요새 신간도서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새로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할 적에 자원이 얼마나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서구입비 확충은 예산부에서 이걸 노력을 해

서 하여간 많이는 못하더라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원단체, 교원노조, 노무사 그것은 이게 7월 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그러면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노동법이나 이런걸 모르셔가지고는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부서부터 적어도 관리자한테는 이런 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서 강사로 써 가지고 이 교육을 해라하는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들을 일단 8월말에 퇴직할 교장선생님까지도 이 교육을 시키고 다시 9월 1일자 교장선생님이 임용되면 2차적으로 또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교총이라든지, 한교조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 3개 단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에 대한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이것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경비를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 이상일 위원

예.

● 위원장 김광수

이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상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요구주의 원칙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여기 지금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도 선생이 원래 돈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아시고,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사업 해서 이것이것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 들어왔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기타 다른 것은 요구를 안해도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배분하나 해서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지역교육청 사업은, 아니 저 목적교부금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온 것은 그냥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냥 교육청에 의해서 얼마큼, 얼마큼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아오면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각과로 배정이 되면은 거기서 지역의 어느 학교,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거기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하실 때에 지역교육청에 소위 그 요구, 예산요구에 의해서 짜는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니, 안 받고 직접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

● 이충원 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예산편성 했을 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밑으로부터 해 올라와야 그게 타당하지 힘있는 자, 더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 또 더 얘기를 하면 선심성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연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정말 이 지방교육청에서부터 바뀌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난 누구하고 아니까 더 받아온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안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원칙하에서 이게 있어야 하니까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얘기이고 하면은 이게 필요한데 저거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달라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특정사업건만 요구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마치 이번의 예산은 내가 잘 모르는 쪽으로 볼 때는 먼저 그 예비비에 남았던 것과 또

는 도교육청에서 소위 우리가 삭감된 액수를 어떻게하면 교묘하게 배분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물론 아니지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가 예산운영은 그렇게는 안합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어떤 이, 아까 이상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사업계획이 결정이 돼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대충 짜라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 관계없이 지금 얘기대로 일방적으로 청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은 저희가 지양해야 하지 않나.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예산은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해주고 그걸 해오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목적이 딱, 딱, 딱 지정이 되어서 온 것은 그 사업 내용대로 미리 여기서 사업책정이 되다보니까 그 시·군이 어느 군에 얼마 얼마 돌아가는 두가지 자원배분이 내려간거 그게 올라옵니다.

● 이충원 위원

두번째 말씀은 지금 또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요전에 도의회에서 삭감된 액수 있

잡아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삭감된 내용을 문서로 주든지, 녹음으로 주든지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찾아 바라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사실은 왜 그 알았냐,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제가 들은 얘기라고 하면은 그 삭감할 때에 많은 액수를 여기 보니까 무슨 뺏긴게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알아야 사실은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건 의회에 보내 드렸는데요. 바로 보내 드렸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니 액수는 알지만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내역을 저희가 보내 드렸습니다.

● 이충원 위원

무엇 때문에 깎겼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목적외에 예산인 것 같으니까 깎은 분야가 많거든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그 설명은 어차피 제가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교육위원님들도 먼저 예산 1회 추경할 적에 어떻게 되었던 대외적이고, 또 언론이나 이런걸 봐서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불요불급으로 판단을 해서 본청 수선비 1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도의회 가니까 교사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도청하고 이 의회

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거기까지 설명은 안드리겠습니까만 그러다보니까 다음 어차피 추경이 도교육청 지나고 나면은 도청이 올라올 것인데 여기서 참 도의회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이게 도교육청 예산은 그냥 넉넉하게 우물우물하게 해서 심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이걸 뭐 그게 어디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위원회에서도 약 한 18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심지어 나중에 안되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 이거 18억이고 20억 감해야 되니 심지어 감할 것을 안되면 내나라, 안되면 우리가 조정해서 그냥 가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예산조정소위원회 하는데 초정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저희도 어디로 갔는지 저희도 못 쫓아가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학천탕에 박학래의원인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위원회도 뭔가 심의를 했다하는 대외적인 어떤 그런 것도 .....

● 이충원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넘긴 것을 도의회에서 깎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도 백방으로 그걸 안깎길려고 그 노력을 무진장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처 발견 못했고, 그런걸로 우리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다시는 그런 것을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쭙보는 것 뿐이에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나중에 그게 교사위원회에서 한 18억인가 얼마 깎고는 예·결위 넘어가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된게 거기의 배인 35억 정도를 감해야 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75억을 좌우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거기서 한 것 해서 그때 한 1천억 얼마가 갔는데, 400억인가 뭐 빼고 나가지고 한 70억을 감한다고 그러고 나가지고 보통 힘들지 않았습시다. 제가 예결위원장 삼양가스인가 거기를 두번, 세번 비가 쏟아지는데 가고 그랬었는데 참 힘들었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희가 여기서 방망이 쳐서 넘긴 것은 사실은 그때 우리 통과가 되는게 바람직해야 저희 체면도 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번째는 역시 두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링장 등인가 하고, 불링장이라네, 저 로울러스케이트장, 생전 타 봤어야지 그게 얼른 입에 나오지, 그거하고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10억인데, 두개가 이것이 장기적으로부터 그전서부터 이것이 꼭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서가 나왔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1등 했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로올러 1등 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1등 했으니까 그 즉시 선심쓰느라고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제기하는고 하면은요, 요즘 계획서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지금 계획서를 보십소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지적도를 좀 떼고 한결 좀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 이 지적도를 떼었나 그러시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옛날서부터 그전서부터 이걸 꼭 해야겠다 그런데 본 예산에 먼저 예산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돈이 좀 늘었으니까 그게 한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 두개 붙었는데 하나는 견적서를 받았대요,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 이충원 위원

견적서 내역을 받았는데 이 견적서를 언제 받았나하는 것도 보셔야 합니다. 여기 공문 보낸 날 받았어요. 이걸 사실 솔직한 얘기가 이걸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울러스케이트장이 .....

● 이충원 위원

어떻게 되어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10월 6일에 보내고, 공문이 여기 온 것은 6월 보내고, 같은 6월, 청주시내에서 보낸 것 보

십시오. 청주시내에서 보면 6월 12일에 보냈는데 이를전에 이것을 견적서를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올러스케이트장은 애초에 시작된 게 어디서 되었느냐하면 이번에 로올러 협회에서 서부터 이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학생들이 금년에 정규종목으로 채택되면서 125m의 트랙이 200m로 바뀌고, 평평한 데서 약간 접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회에서 체육회고 뭐고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다 안되니까 학생 우선 훈련이 제대로 안되니까 쌍둥이 건물에 지금 로올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회에서부터 교육청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고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접근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 견적서 나중에 붙은 것은 11억하고, 1안, 2안으로 해온게 11억하고 8억 5천,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8억 5천하고 두가지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특수설계랍니다. 서울에 어디한군데 밖에 해놓은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막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때 쫓아가서 그 서울의 어디하고, 충남인가 대전인가 어디한데가 있답니다. 그거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요구해서 그거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 선심성이 아닙니다.

● 이충원 위원

내가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도

이런 교육행정으로 이 막대한 예산 10억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나는 로올러스케이트장 해야한다는 사람이고, 지금 뭐니까, 체육위원회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오래전서부터 이것이 논의가 되고, 계획이 되었어야지. 여기 공문 낸 것은 요구한 것은 12일인데, 이 견적서 받은 건 6월 10일 이틀전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대단히 이게 급조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런 건 변경 설계를 한게 아니고 특수설계 .....

● 이충원 위원

물론 액수 알아보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조금은 행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느냐.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리고 저걸 저번에 솔밭공원 같은 데다 해가지고, 청주시내의 많은 학생들이나 누구도 와서 이용하고, 선수들도 가서 하자. 이게 현암학교 가면 저는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 이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과장님 혼자 그걸 하신 것도 아닌 것이고, 다 그런데 뒤에 김과장님 계시니까 좀 여쭙본 것이고,

아니 그거 여쭙 본 것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없어도 1등했는데 뭐 나는 어느게 더 급하냐하는 명년에 다음 추경에 또 하더라도 남았으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로울러스케이프장 말고 또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 이충원 위원

체조경기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급한게 내가 뭐고하면 교육, 물론 체육도 교육입니다. 이거 선수양성을 위해서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하는데 조금 그 다음에 3차 그때에 조금 늦더라도 더 급한게 뭐고하면 아까 우리 송진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교사 같은 것에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또 자율연수에 나는 원칙적으로 자율연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자부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새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한다던지, 또 아까 얘기대로 업무상 컴퓨터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한 7억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 학생용 컴퓨터 관계를 기자재를 좀 사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걸 더 충분히 좀 하고, 위치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현암 있는데, 현암초등학교 있을 때 한 두서너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눈독 발독 찾아가 봤는데 거기다 해놔서 얼마나. 사실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선수만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은 아까

지역 말씀도 했는데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폐지학교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

● 이충원 위원

그래서 해야한다는 건 저도 돈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요. 로울러스케이프 같은 거 대중화되어서 외국가보면 애들 전부 90%는 그런거 타고 다니는 걸요 뭐. 내가 그거 다 인정하지만은 이게 선급이 어느게 더 지금 빨리 해야하고 늦게 해야하고 하는데 지금 저는 보기에는 교육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원사기진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기진작책으로서 뭐 이런 것 했다고 사기진작이 되는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면에 우선적인 배분하고 조금 다음 추경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 예비비도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한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비비는 32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32억이니까 지금 10억밖에 안된다며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32억이 예비비가 많은 게 아닙니다.

● 이충원 위원

그걸로 나중에 좀 하시더라도 이것이 나는 이걸 딱 봤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스럽게 이것이 여기서 안 깎이면 됩니까, 저쪽에서 안 깎이면 다행인데 또 이거 죽 봤을 때에 그 내용은 모르고 잡아서 깎

아 놓으면, 봐라 너희들 그냥 .....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건 도청에서 오히려 그 시설을 지어야 하는 걸 절대로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이충원 위원

다행인데, 그래서 어느게 교육적으로 조금 더 하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제입니다. 해야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것부터 교원사기진작이나 교육에 교육현장이 더 필요한 거냐. 그래서 그걸 조금 가지고 있다가 신중히 생각해서 다음 추경 또 있지요? 몇월에?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이제는 금년도 추경은 마무리 밖에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마무리할 때 이것은 못 넣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때는 못 넣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무튼 제가 개인생각으로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야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보셨을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지금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의 예산이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타 시·도하고 경기하기 위해서 도의 학생들의 여러가지 기량이라든지 사기

진작으로 봤을 때 저희 전국체전에 가서 3위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넣어 주었고, 또 그 후로 인해서 탄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못한 것도 아니고, 타도에 비해서 체육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3위를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로올러스케이트가 타시·도에는 3개,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하나만이라도 해야 우선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한 금메달을 12개 따취가지고, 우월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비례를 한다는 쪽에서 나온 것이고, 체조경기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지만 청주여고가 그 강당을 1년여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강당을 몇십억을 투자해서 지어야 합니다만 4억 정도로 해서 초·중·고가 거기서 대표선수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같은데도 많이 투자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육의 어떤 소외된다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송위원님이 얘기해서 체육회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계기에 장만을 해야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16개 시·도에서도 14위나 15위하면 이 자식들 맨날 꼴찌하는데 무슨 예산이

야 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위권 갔을 때 그것도 비례해서 같이 가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거나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그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했을 때에 교육본청에 외장을 다음에, 그것도 해야돼요. 정말 챔피언스럽습니다. 해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현장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여러가지 시간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이런걸 위해서 이것을 우선 하고, 그리고 다음에 추경이 없다라고 하는게 걱정이 되는데, 후기로 돌렸으면 어떻하겠느냐 하는 하나의 소원일 뿐이에요. 이건 오해하지 말고, 대전제가 붙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내가 근본적으로 좋은 교육시설을 뭐하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제가 보니까 땅을 공짜로 해서 좋긴 좋은데, 저기 현암에 다 해놨을 때에 물론 10년이나 5년가면 괜찮습니다. 거리가, 아까 답답해서 혼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웃으며 들으세요. 저쪽에 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 귀퉁이에다 해 놓으려면 저 청원군에서 미원고등학교 옆에 쓰레기 매립장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못쓴다고 그러는거 그걸 공짜로 얻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혼자 좀 해봤습니다. 이걸 뭐 부정하는게 아니고, 조금은 장소위치 문제도 그렇고 조금 선급이 어느게 선후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없나.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어쭙보는 건데, 과장님 말씀, 김과장님 말씀은 꼭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대로 들고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사의 사기진작관계 말씀하시면서 기간제 교사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책정되어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를 못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기간제 교사가 꼭 필요하면 써야지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별로 안되고, 단지 연수경비 자율연수경비는 저희들이 기준해서 자력연수는 주고 있고, 아마 여기서 지정되어서 가는 연수경비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해가지고 여기 저기 가는 연수비를 전체를 다 저희들이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건 안하고 있는데, 이거 자율연수경비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다 앞으로 자비부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거 말씀하신게 있으신데, 교사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

● 위원장 김광수

(제103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저 이과장님 답변을 이 정도에서 마쳐 주시지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오늘 1차 회의를 끝낼까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의 과장님이하 여러분들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7월 1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를 다시 해서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6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손만재,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초등교육과장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 (별첨2)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7월 1일 (목요일) 10시 37분

## 議事日程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개회)

●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소위원회에 이어 계속하여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 위원장 김광수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마무리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손만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요번 회기까지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 도교육청 직제순에 의해가지고 그 직제별로다가 그 내용이 틀리시니까 거기서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몽골, 베트남 국제교육시찰단이 본청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안내와 현황설명,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답변해 주시죠.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 위원장 김광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먼저 학교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이 학교계획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아래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계획서를 심사하여서 우수계획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는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학교계획서를 심사 의뢰해서 초등 86개교, 중등 36개교 중학교, 고등학교 32개교, 모두 154개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심사결과 초등학교 4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6개교, 모두 77개교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의 총액은 3억 7천.....

● 간사 손만재

3억 7,300만원 아닙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3억 7,350만원인데, 이것은 최우수·우수·장려 이러한 등급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은 630만원, 그 다음에는 450만원, 270만원,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획서에 관한 심사도 철저히 했고 계획서가 좀 미비하다,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학교에 개별 통지를 해서, 보완해서 학교경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우수학교, 지원금을 받은 우수학교는 방문해서 학교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점검, 확인, 평가해서 연말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는 전도에 확산, 보급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간사 손만재

보충질의 해도 되죠?

● 위원장 김광수

추가질문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 간사 손만재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계획서에 이것을 상금을 주셨는데 이 계획서대로 학교경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확인을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리고 계획서에서 탈락이 됐는데도 학교경영이 우수했다하면은 추가로다 그 학교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그것은 계획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내년에는 안합니다만은 학교평가를 할 때에는 계획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운영경과, 전반에 걸쳐서 우수한 학교에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연구회 연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교과연구회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의 수는 15개 연구회입니다.

여기에 한 개 연구회가 추가로 돼서 추경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16개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1개 연구회에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연구회가 아닌 전체 도내 회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회입니다.

그 다음 이것 외에 교육부에서 직접 연구계획서를 공모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주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전국 공모조의 조직 운영되는 교과연구회는 103개 팀으로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4개팀 연구회, 개인별로 조직한 연구회 중학교 23개팀, 고등학교 38개팀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단위 연구회는 지금 말씀드린 16개 연구회가 있는데 현재 15개 연구회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고, 1개 연구회는 추경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된 교과연구회 중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연구회는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는 1개 팀 외에는 없습니다.

교사들의 연구열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수한 연구활동실적을 거두는 연구회에 대하여는 교육부 또는 도교육청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럼 도내에 지금 교과연구회 전체 수가 16개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도록 한 영역과 교과가 있습니다.

주로 교과 중심입니다.

● 간사 손만재

예. 교과중심인데 그럼 16개 팀밖에 없는 데 전체도 600만원씩 주는 거네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손만재

전체를.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그렇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래서 안타는 팀은 없네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또 별도로, 중·고등학교는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이 교과연구회는 한 4년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지원을 못했는데 '97년부터 예산지원을 한 후에 연구회 회원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그 연구한 결과를 모두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 내용이 매우 우수하고 학교현장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 올릴 것이 교과연구회에 너무 지나치게 뭐 공문을 보내고, 뭘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해서 참여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이 공문이나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한번 살펴주세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그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나 자율 연구회이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도나 감독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좋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그 다음 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초등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

있어 지역별로 불균형한 면이 있는데 시·군별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보조교사 제도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학력 미취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의 효율성 증진 및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영어 보조교사의 배정원칙은 3,4,5학년 학급 수가 12학급이상인 학교 수의 비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3,4,5학년 학급 수가 12학급이 넘는 학교 수의 배율로 시·군교육청에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3,4,5학년 학급 수를 합한 규모가 큰 학교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5학년 학급수 12학급이상되는 학급수 비율로 시·군교육청 인원배정을 하고 학교배정을 보려면 3,4,5학년 학급 수를 합한 규모가 큰 학교수 별로 배정하고,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첫 번째 말씀드린 배정은 도에서 지역교육청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5학년 학급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습 수가 많은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원칙입니다.

우선 시·군별로는 전체 학급 수가 3,4,5학년, 초등학교 영어지도는 3,4,5학년이 지금 정규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 12학급이 넘는 그런 데 시·군 배정을 하고, 그 이하는 지역교육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도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 배정 인원이.....

● 간사 손만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교육청이나 단양교육청이나 영동교육청같은 데에서는 3,4,5학년에 학급 수가 12학급이 넘는 데가 없습니까? 여긴 배정이 한명도 안 되었던데.....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 배정인원 4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4,5학년이 12학급이상인 학교 수가 51개교가 됩니다, 본도에.

그래서 12학급, 13학급 3,4,5학년의 학급 규모 12학급, 13학급 규모의 학교 11개교를 제외하고 40개교에 우선 배정했습니다.

12개 학급이 넘는다고 해서 전부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명밖에 안되고 12학급이 넘는 학교 수는 51개교이기 때문에 11개교는 배정을 못했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주교육청이 25명, 충주교육청이 7명, 제천교육청에 4명, 기타 4개 교육청은 한명씩이고요, 영동, 보은, 단양, 청원교육청은 배정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따라서.....

● 간사 손만재

예, 그런 기준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배정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배정원칙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교육부 지시입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교육부에서 인원만 배정하고.....

● 간사 손만재

인원만 배정했죠?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구체적인 기준은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교육청이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지역 안배를 해야 맞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런 쪽으로 좀.....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 답변은 저는 됐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액이 16억원 증액되었는데 초등학교가 중·

고등학교보다 많은 이유는, 들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수요자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입니다. 학부모, 학생의 요구와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여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99학년도 전반기에는 교육부 신청에 27억 8,588만 1천원중 56%만 배정을 받았던 예산을 56%에 해당하는 15억 6,993만 8천원을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이 배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배분은 지역교육청과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신청을 받아 특기적성 교육활동 자체평가를 근거로 하여 예산 배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소요액을, 정확히 조사해서 학교신청을 받고 그것을 지역교육청별로 집계하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직접 집계를 해서 그 요구액이 27억 8,500여만원인데 교육부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 56%에 해당하는 15억 6,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나 지역쪽에서 지원한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그 지원실태를 파악해서 차등 배분한 것입니다.

우선, 최우선은 학교에서 신청한 액수, 요구한 액수, 그 비례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도 많고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

초등학교에 배부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럼 저 중등, 다시 말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대한 답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뭐 중등학교에서는 지도를 이 초등보다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 지원요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이주원입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고등학교마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기적성 교육관계는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 간사 손만재

아니 지금 제가 그 예산안을 보니까 특기적성교육활동운영비를 배부를 했는데 초등에 너무 지나치게 돈이 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왜 적으냐.....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필요한 예산요구를 각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배시해 주는데 그 기초로 한 것은 지금 말씀을 초등에서 하신 것과 같이 100%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체, 요구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수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볼 때 고등학교 학교수가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수, 그 양으로 봐서도 적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간사 손만재

충분한 예산 지원이 뭐 안되고,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 간사 손만재

초등에서는 이 적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등에서는 이게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장들이 예산요구를 안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그것은 제가 보충질문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기적성 교육.....

● 간사 손만재

중등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서 얘기.....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지금 저 예산파트에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쓰다 남았던 그 예산이 있거든요. 8,50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들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배시된 것은 적

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 간사 손만재

그것은 집행을 안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그것도 거기 학교에서 가지고 있죠.

● 간사 손만재

여기 제가 알기로는 특기적성 활동이 초 등보다는 중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고 이런데, 여기에 예산 배분이 적게 됐다는 것은, 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은 무엇인가 그래도 중학교 적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기적성의 성격으로 봐서 참 고등학교로 갈 수록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진학지도를 위주로 한 교육은 탈피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업계 계통이나 이 쪽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일반 계 고등학교 쪽에서는 교과교육 쪽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 간사 손만재

그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진하위원 “위원장님, 내가 좀” 하고 말함)

● 위원장 김광수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예요?

● 송진하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김광수

예.

● 송진하 위원

특기적성 교육이 방과후 교육활동 아니에요, 그전엔?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99학년도 2월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명칭이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명칭이 바뀐 습니다. 내용은.....

● 송진하 위원

지금 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등영 어보조교사 배치문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하고, 지금 특기적성교육 지원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청주시나 이런 데에는 그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자원인사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원인사를 이용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어요. 영어. 시골은 어렵습니다. 누가 있어요? 자원인사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배정되지 않은 그 시·군, 몇 개 시·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번에 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 배정되지 않는 시골에, 시골의 시·군에 영어보조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청주시의 어떤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자원인사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되는 시골에



지도교사를 배치해 주는 게 옳다고 본다면 즉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영어보조교사는 6개월 단위로 계약제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시로 인원을 변동한다거나 배정은 어렵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게 다 배정이 된 거예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지금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 간사 손만재

배정이 끝난 겁니까, 앞으로 배정을 하실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끝난 것입니다.

● 간사 손만재

끝난 겁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이미 배정해서.....

● 간사 손만재

그럼 지금 올릴 필요도 없잖아, 끝난 거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아니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이 저 보조금에서 지정이 돼서 온 것은 이미 진행을 하면서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들

어봐도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특기적성교육이 됐든, 아까 그런 문제의 실질적인 지역안배도 하면서 더 어려운 쪽, 군단위나 농촌학교에 많이 배정들을 해야 됩니다. 너무 청주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초등교육이 됐든지, 중등교육에서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다음에는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배정 계획할 때도 심각히 고려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그 기준에 맞는 다른 학교, 다른 교육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청주에 25명을 몽땅 다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다음 문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평가 방향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성장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몇 해를 실시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이 좀 늘었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를 저희들은 수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학교평가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년 주기, 또는 3년 주기로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2천년부터 만약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평가요소나 이런 것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평가항목 16개 요소, 100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10개 요소, 50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거기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 간사 손만재

예. 그럼 금년에는 학교평가 안하시는 거죠?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금년에는 안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안하는 것을 다는

모르고 있던데.....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전부 언론을 통해서 홍보했고,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또 각종 회의시에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 간사 손만재

좀 둔해서 그런지 아지 모르는 곳도 있어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저희들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 간사 손만재

이것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확인해서 지도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고 하신 것.

● 간사 손만재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그럼 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원님께서 장학지도에 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장학지도 방법을 획기적으로개선할 용의

는, 개선하였다면 그 방법은, 그 다음에 장학지도시 교직원의 건의사항 처리여부는 학교에 통보하여 주었는가, 초·중등 구분하여 잘된 사례 세가지씩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입니다.

이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장학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부터 계속해 온 것이지만 이 법 정신을 받아들여서 장학지도를 저희들은 계획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수업혁신과 교육조직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초·중등 합동장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초중, 중등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일선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업무 부담이 좀 많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렴해서 금학년도에는 초·중등 합쳐서 두 기관이 두 번 나가던 것을 한번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례의 일상적인 인상작업을 포함하여 통신장학을 출시하고 개인 E-mail을 통한 상호 장학과 현장 장학위원 위촉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학부모, 지역인사 이런 분들을 장학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현재 장학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학지도시 교직원의 건의사항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전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각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 자체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왕성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부는 해결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부처에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도. 장학지도 결과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지역교육청마다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자료만 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괴산 중평초등학교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평초등학교는 대규모 학교로서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고 특이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지도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매우 선생님들, 또 외래 강사들이 의욕적으로 지도해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원군에 있는 상봉초등학교 6학년짜리 조그마한 학교이고, 조치원을 지나서 충남과 경계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근래의 2,3년동안에 교육정보화 시설을 활용한 열린교육을 매우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인근 충남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금년 1학기에 15,6명의 학생들이 전입을 해서 늘어나는 학교의 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매우 우수사례가 훌륭해서 첫 번째 대통령이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교육감님께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성군 무극초등학교, 음성교육청이 실시하는 인성교육 단지와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교육 절약 시범학교로써 2년간 활동해서 첫 번째 보고를 했는데 교육부나 에너지 관리공단 참석자의 말에 의하면은 전국 16개 도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증평중학교에 자연사 박물관을 활용한 체험학습이 중등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괴산고등학교에 도·농간 교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이 고등학교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의 이름있는 사립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것이 더 한층 괴산고등학교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주예성여고에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매우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간사 손만재

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우선 지역적인 문제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5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교감배치 안한 학교도 있어요, 지금.

● 총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 간사 손만재

아,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간사 손만재

그럼 이거 잘된 것 이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수

장학지도에 관한 문제이죠, 그것은 됐죠?

● 간사 손만재

됐습니다, 그것은.

● 송진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수

예. 장학지도에 관해서만.....

● 송진하 위원

지금 장학지도의 각 시·군의 장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예

● 송진하 위원

장학지도한 결과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적절한 장점을 파

악을 하셨고, 또 앞으로 그 장점이 각 시·군에 보급이 되겠는데.....

어제 우리가 괴산군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괴산교육장님 말씀이 분교장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 본교하고 분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교장은 분교장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교에 있는 학생들을 본교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교육도 하고 또 본교 학생을 분교장으로 가도록 해서 거기서 분교 학생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시책을 쓰고 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로 얼마나 좋은 교육활동이예요. 교육의 활성화, 소외감 해소, 아주 좋은 시책인데 그것은 파악이 안된 거예요?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파악이 됐는데 여기 세가지씩만 초·중별로 하라고 그래서 작은 문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알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분교장이 자꾸 많아지는 과정에 있고, 또 분교장 통·폐합에서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것인데 그런 교육이 잘 된다면 우리가 얘기 안해도 서로 통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이기수 위원

저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말입니다. 저희가 괴산교육청 방문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요새 폐교, 분교로 격하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질감을 없애고, 지금 분교에 복식수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복식, 3복식 해 갖고서 하는 것, 그럼 본교에 있는 인원하고 같이 합친다든지 하면 그것을 복식을 안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복식수업에 대한 거부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통·폐합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같이 합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통·폐합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해 갖고서 우리가 어제 거기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도 있고 이러니까.....

●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 정인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시달렸고, 또 괴산교육청이나 뭐 그런 계획을 받아들여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정해서 옥천 죽향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분교 통·폐합 예정학교와 사전 지도를 해서 통합됐을 때 자연스럽게 화합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계속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원지원과장 유승덕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학급미만 교감 미배치에 대한 불만 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시면 6학급미만일 때에는 교장, 교감이 학급담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학급미만일 때는 교감이 학급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에서는 지방의 9월 1일자로 4학교 교감을 배치를 안했는데 그 네학교 배치를 안한 학교의 학급수는 3학급이었고, 또 폐교 대상교였어요. 그리고 '99년 3월 1일자로 학급수가 4학급이면서 학생수가 50명이하인 학교 11개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감을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수업을 담당하게 했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5학급이하인 학교는 이번 9월 1일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교가 내년 2월 달에 폐교 대상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한명씩 배치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손만재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5학급미만 학교의 교감 미배치 도가 우리 도 뿐입니까, 다른 도에도 있는 것입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 간사 손만재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교육부 지시입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그러면 이것을 교육부 지시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치 교육감이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고,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안주는 양으로 이렇게 일선에서는 불명을 합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 간사 손만재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게 “교육감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육위원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일선 학교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그렇게 해 왔습시다만은 아직까지 주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으로서는 일부 자율연수 여비의 본인부담에 따른 불만 해소책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이기수과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몇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지난 2월 9일날 교육부에서 “'99년도 교원연수방향”이라는 지침을,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시다.

거기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승진규정이 금년 1월 이후에 자격연수하고 일반연수, 세 개 받은 점수를.....

● **간사 손만재**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도 포함됐습시다만은 그 자격연수에 필요한 개인들이 대학 찾아가서 돈 12만원인가 얼마 내고 받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상치과목 교사를 가서 연수를 하라 뭐 이려고서 여비를 안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그래서 이렇게 연수의 희망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고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여비를 전부 부담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 **간사 손만재**

그러면 연수희망자가 많다고 그러면은 교장연수나 교감연수시에.....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아니 그런데요, 저기 우리 교육청 쪽에서 필요로 해서 시키는 직무연수라든지 자격연수, 이것만은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자의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받는 그런 연수는 지금 자부담쪽으로 .....

● **간사 손만재**

이것도 교육부 지시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이것도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아니 지금 어려워니까 대부분의 시·도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 손만재**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안주는 게 아니죠, 이게?

● **총무과장 이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안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교원지원과장의 말대로 저희가.....

● **간사 손만재**

불쌍한 사람들 욕을 얻어먹지 말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자꾸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

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총무과장 이기수

다시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됐습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하신 승진후보자 명부를 8월에 기존연수자와 통합 작성하여 기존연수자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43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매년 1월 말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진자 명부가 작성된 것이 이러한 근거하에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44조에 보시면 수시로 조정이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이미 등재되어 있는 분들하고 다시 자격을 획득한 분들, 이렇게 섞어서 점수 순으로 다시 서열을 매기고 승진후보자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요전에 손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분은 먼저 내보내고, 나머지 부족분을 다시 서열을 지어서 내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교육감님께서도 회의때 그런 쪽으로 법개정을 해다구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또 저희

들 인사담당이나 과장님들 회의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육부 지시에 의하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교육감의 이 재량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본도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의 말씀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고 무난하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받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그 다음에 현재까지 명퇴 철회 인원수를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명퇴 철회 인원이 초등에 59명, 그 다음에 중등에서 25명, 사립에서 4명, 그래서 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간사 손만재

이게 교장입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장, 교감, 교사.....

● 간사 손만재

전부 합해서?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알겠습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그 다음에 초·중등 교장, 교사의 초빙계획은, 명예퇴직자의 포함 여부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초빙계약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정년 단축이 됨에 따라서 앞당겨서 나가는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빙계약제를 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교사는 명퇴자까지 포함을 해서 희망자를 수용하고 지시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게도 지난번에 정년잔여 6개월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초빙계약제를 할 경우에 우선하라는 그런 그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 실정으로는 지금 저 교장자격을 받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이 초빙계약까지는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 간사 손만재

예. 알겠습니다.

초빙교장 임용은 우리 도에서는 없다, 이 말씀이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예. 알겠습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 간사 손만재

기간제 교사는 하겠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위원장 김광수

교장,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초빙제에서 제외된다, 이거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앞당겨 나가는 분들이 초빙의 대상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러니까 교장, 교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은 초빙제 교장, 교감에는 안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안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 위원장 김광수

안한다, 그런 얘기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이상일 위원

현재 있는 것 외에는 더 확대를 안하는 거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이상일 위원

현재 초빙제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 외에는.....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아니, 지금 혼동이 생기는데요, 초빙교장

제가 있고, 초빙계약제가 있어요, 초빙계약제. 이미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은 초빙교장제이고.....

● 이상일 위원

정년퇴임해서 간 사람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다시 이제 초빙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초빙계약제로 구분하고.....

● 간사 손만재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초빙교장제는 안하겠다는 이거지?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이충원 위원

왜냐하면 관심들이 다 있으신, 다들 그래요.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이기수 위원

계약제로 안하신다는 얘기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정년퇴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약제를 안하겠다는 얘기죠?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초·중고 마찬가지로입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 이기수 위원

현재 인원이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조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족한 것은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중등에서 지금 추가로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됐습니까?

● 간사 손만재

예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당초예산이 5천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3,400만원이 추가 계상되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행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0개의 시·군만이 실천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은 명퇴자, 정년퇴직자가 이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응시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63명이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많이 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 손만재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사업계획이 5천만원짜리 아닙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기정예산은 5천만원 아닙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손만재

얼마나 이 계획이 잘못됐으면 3,4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을 담당자가 예측을 못하고서 계획을 했던 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천만원은 1년에 교사임용고사를 12월에 한번 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정퇴자하고 명퇴자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5월 달에 예측하지 않았던 임용고사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니까 그 비용이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어쨌든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응시자한테는 무료로 줘니까, 원서료정도는 받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전형료는 받습니다.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수수료를 2만 5천원씩 받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서 충당이 안되요?

● 총무과장 이기수

세입재원은 들어오는데 지출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니까 세출예산 쪽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세입·세출 차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거의 1대 1 경비로다가 저희들.....

● 이기수 위원

1대 1 경비?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간사 손만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소관 답변이 다 됐어요?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또 다른 분.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중식지원 대상학생 선정시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의 2분의 1만 선정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감축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자체 급식지원 학생수는? 이 두가지를, 질의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중식지원 대상이나 선정기준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전혀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중 꼭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선정토록 하고, 급식학교의 경우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학생의 일정비율, 학교실정에 따라 50%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급식학교의 경우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일정비율을 자체적으로 좀 유도를 해라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은 그러나 학교자체급식 지원수는 총 6,958명중 35.8%인 2,497명을, 교육청 지원대상 학생수는 64.2인 4,46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학교지원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도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럼 현재 지정은 4,461명의 급식학생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 학교장이 보고해 준 것의 64%만 된다 이런 얘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64.2%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요, 50%를 하라고 한다면 학교 자체적

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35.8%인 2,497명입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런데, 그러면 학교장이 요청한 것의 50%밖에 안됐다 그러면 14%는 불이익을 본 거네, 그럼?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학교 자체에서 이익을 본 거죠?

● 간사 손만재

불이익을 본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간사 손만재

그럼 선정에 무슨 문제점이, 어느 학교는 더해 주고, 어느 학교는 덜해 주고 이런 지정을 더해 주고 이럽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이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청주시내같은 학교에서 좀 급식인원수가 많을 때는 그 좀 어려운 학생들을 같이 더불어서 먹게끔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간사 손만재

그런데 이 50%를 그렇게 급식을 시키는 학교에서 50%를 부담해라 하는 권장사항이 있으면은 전부 50%로 짜는 것인지, 어째 64%되는 곳이 있고, 70%.....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64.2%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35.8%입니다. 50%가 못미치는 것이죠 그

러니까.

● 간사 손만재

제가 세 학교를 물어봤는데 50%밖에 지정을 안해줬다고 그래요. 시방 학교에서 부담하는게 36%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전체 통계를 잡은 것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게 초등학교의 경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초·중·고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초·중·고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초·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 간사 손만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 학교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아주 50% 짜르려면 50% 하든지, 60% 짜르려면 60%를 짜르든지 이래야지 학교장이 보고한 것의 어느 학교는 열 사람씩 신청했다니 일곱 사람이 되고 어느 학교는 다섯 사람이 됐다, 이러면 평생체육과에서 육을 얻어먹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형편에 맞게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결식학생이

중식지원 하는 학생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50%는 그 학교에서 담당하라 이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급식하는데 같이 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돈 안내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송진하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되는 것이거든 그게. 다른 학생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죠. 예.

● 송진하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시책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 송진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학교에서 저 소규모 학교는 한 50명 되는데 그럼 열명이 중식지원 대상자라고 가상해서 얘기했을 때 그럼 40명의 학부모가 10명의 남의 집 아들이 다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열명에서 5명만 먹여주는 것이죠. 50%이니까.

● 송진하 위원

5명이라도 그렇죠. 이것은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학생이 어느 학교가 50%씩 그렇게 전체 학생의 비율이 아니고요, 대개 보편은 약 한 저희들 도내 전체 약 한 7천명정도가 되니까 급식대상 학생수가,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금 12만정도 됩니다, 총 학생수가. 그것에 보편은 0.6%내지 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학교, 청주같이 한 학교 학생들이 2천명씩 되고 하는 데는 급식을 많이하다 보니까 한 50명, 또는 100명을 자체 거기서 해결을 하고, 적은 학교, 학생수가 100이하되는 데는 두명이나 세명 또는 네명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도 자체 급식 받아가지고 어려운 데, 이런 데 하다보니까 50%가 안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이렇게 자체 해결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너희 학교의 중식, 이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것밖에 안된다. 하나를 먹이든, 둘을 먹이든, 그러니까 지금 국고지원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기수

지원을 하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

● 송진하 위원

국고지원비가 있잖아요, 급식학교에. 농촌지역은 좀 많고 그 외에는.....

● 총무과장 이기수

도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도시는 없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송진하 위원

여하튼 어떻게 됐든, 점심 굶는 아동을 너희 학교에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 총무과장 이기수

다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십시일반 해가지고 몇 명씩 좀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차차 줄여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민에게 결식학생돕기 모금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충원 위원

제가 순서가 안돌아 왔는데 좀 여쭙보겠어요, 그 첨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우리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으로, 소위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얻어왔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송금이 지금 현재 2억 9,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약 한 3억.

● 이충원 위원

3억을 받아 온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각처에서 지원이 들어온 거죠.

● 총무과장 이기수

저 아주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결식, 급식비 지원의 부족분은 요전에 장관님 오셨을 적에도 교육감님이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교육부에서 해결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 들어간 것, 국고 3억 온 것, 지원된 2억 9천을 합치고 나서도 모자라는 게 7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교육부에다가 7억 6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다 필요한 것을 따져가지고 그 급식비 지원신청을 냈습니다. 그럼 바로 올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충주시에서는 시장이 5억원을 출연을 합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쪽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반예산은 충분히 돌려줄 예산이 있는데 안해 주는 것 뿐이지, 학생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좀더 자치단체장들 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해 가지고

해서 학생들 급식비로 보조해주면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몇 명 안되는 속에서, 그 또 시골을 어려움 속에서 그 50% 애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교육장님들이 어릴 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이기수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 쪽에다가 보조금 준다든지 하는 게 행자부의 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한 법을 연구를 해 갖고서 말입니다, 저 쪽에서 주고싶어도 법에 걸려서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갖고서 저쪽 사람들이 자유롭게 줄 수 있게끔 행자부 쪽에 법개정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교육예산이 7천억이상 되는데 최소한도 이 먹는 것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좀 덜 들인다 해도.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7억이상의 예산하고, 우리 형성된 예산하고 해서 그 차액을 다른 쪽에는 시설 하나를 덜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때를 거르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지.....

● 총무과장 이기수

급식지원비가 얼마 소요되느냐 하면 약 3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지난

1회 추경때 만약에 저희 자원이 있어서 100% 확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국고에서 지원요청 오거나 아까 성금으로 들어온 2억 9천, 이런 지원이 또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교육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다가 한 10억원정도는 의도적으로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요번에 7억 6천만원만 올 것 같으면 결식아동은 해결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기수

예. 100% 해결됩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럼 그 이상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 답변 다 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이주원입니다.

손만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저희들 중등교육과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수행평가 시행에 대한 불만 해소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학교문화 창조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 2002년 대학입시제도 변형에 따른 집필고사에만 의존하던 것을 학생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학교내신성적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하여서 생긴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시위주 쪽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 수행평가가 내신성적과 관련이

되니까 또 이제 집필고사 쪽에서 학부모라든지, 각 학교에서 관심 가지던 것이 이제 수행평가를 상당히 중시하니까 그 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알려주시고, 아주 세세한, 자세한 지침까지는 주지를 앎아가지고 일선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일선이나 저희들이나 조금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지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도는 별로 수행평가에 대해서 많이 안났었는데 서울이나 이쪽에서 먼저 상당히 타시·도에서 많이 무리가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쯤 되어 가지고 6월초 이때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지침이라든지 이 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일선을 돕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그 해결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나 하면은, 처음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너무나 선생님들의 업무, 다른 일도 참 많은데 이것을 기능별로 총괄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려다 보면 업무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그 줄여주는 차원에서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거기는 필수적으로 하고, 2,3학년은 학교 재량으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바꿨고, 또 교육부에서 어떤 일괄적인 지침을 주면 그것에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



어지게 되면 그 학교마다의 실정이 있고 찍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각 학교별로 교과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교과협의회에서 그 교과에 대한 평가안을 잡아가지고 성적관리위원회가 학교에 있어요, 그러면 성적관리위원회는 학부모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교과협의회에서 올라온 안을 심사해서 학교별로 재량으로 이렇게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은 아무 불평없이 각 학교에서 질문도 없이 잘 추진되어 오고 있어서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손만재**

과장님, 그 불만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대단합니다.

도교육청에만 안했다 뿐이지 저희들한테는 뭐 대단해요. 그것 한번 참고하세요.

● **교원지원과장 이주원**

예. 고맙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

● **위원장 김광수**

이 수행평가가 이게 내신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담임이라든가 이분들은 업무가 폭주해서 밤에도 보따리 싸 짊어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요.

● **교원지원과장 이주원**

그렇다고 그래요. 과제관계 뭐 이렇게 해서.....

● **위원장 김광수**

뭐, 알고 계시네요.

● **교원지원과장 이주원**

그 과제관계 즉 있는데 글썸 그 내용은 그 학교자체로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추진해야 되요. 일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저희도 방문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조금 했었습니다. 어떤 저기나 하면은, 내신성적을, 그 성적을 중요시 할 대학은 전 대학의 20%정도 내외가 되는 대학일 거다. 그때에 가면 그 기타의 대학은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자체로 잘 연구해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학부모들이 너무 과잉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가관계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게 하고 질문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우리 애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손만재**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마지막으로 답변 기획관리과 소관이 있어서.....

● **위원장 김광수**

아니,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 이충원 위원

오늘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어제 질의한 것 대답만 하는 것입니까, 여타도 여쭙.....

● 위원장 김광수

뭐요?

● 이충원 위원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한 것을.....

● 위원장 김광수

가만있어 봐요. 지금 손만재위원님이 질문한 것 답변 중에 있으니까 그 답변이 끝나고 하세요.

● 이충원 위원

예

● 총무과장 이기수

손만재위원님 질의하신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퇴 철회자가 있으면 철회자만큼 그 차입해 오는 것만큼 줄일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받았다고 그래서, 또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그래서 실제 빌려올 적에, 돈을 꾸울 적에 그것을 당연히 줄여 와야 됩니다. 이자 주는 거 무조건 많이 끌어오지 않고 저희가 나중에 지출되는 그 액수만 다시 계산해 갖고 줄여서 차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손만재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저는 질의에 대한 사항 다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 간사 손만재

예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송위원님 질문.....

● 송진하 위원

저도 다 들었어요.

● 위원장 김광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일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요?

● 위원장 김광수

예

● 이상일 위원

본 추경하고는 직접관계는 좀 없지만 어제 사건이 있고 해서 한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유치원 학생들이 야영을 갔다가 참혹한 변을 당했는데 우리 학생종합야영장을 제가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거기 숙소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스프링쿨러 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안돼 있고, 거기를 비롯해서 이제 충주의

중원야영장하고 명서, 제가 지난 주에 명서 야영장을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명퇴한 분 6월달인가 그만두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본청에다가 사정을 해서 한사람 배정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시설을 둘러보니까 교실바닥에다가 나무로 침상을 만들어 놨죠?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이상일 위원

여름에 아이들이 모기향, 촛불, 다분히 거기도 화재가 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가 방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돈이 없으면은 다른 쪽에서 좀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고, 여기 몇군데 보니까 지하수 개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야영장이나 그런 곳에 음용수가 적합한지, 요새 이질이라든지 세균성 질환같은 것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어느 쪽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수질에 대한 점검을 좀 다해 주시고 여기 저 학생야영장에 야영용 깔판을 산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대개 텐트에서 야영을 하다보면 촛불도 켜고, 모기향도 피우고 그러는데 이게 안타는 불연 자재를 살 수는 없는 것인지, 과연 딱딱한 스티로폼 강한 것 그것은 사실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여름철에 학생야영을 앞에 두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이위원님 질의.....

● 이충원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몇가지 말씀을 어제 드린 것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설립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도 급식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롤러스케이트장 하나를 뒤로 미루면 이렇게 정말 구차한 아이들의 굶어서 외부에서 돈을 얻어와야겠다, 아까 예산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좁은, 나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라는 것을 자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7억에서 10억정도가 되는 것인데 애들이 굶기 때문에 지금 7억정도면 안굶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게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오해 없이, 내가 이것을 무슨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김과장님 아까 사적으로도 만났고 우리 김광수위원장님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차상은 제가 서해수련원도 기억 하실런지 모르지만 누가 보든지 하루에 다 해치운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요구한 것 이런 것 보면 서류적으로, 그래서 난 실무진에서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윗분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보든지 급조된 것으로 서류는 되어 있거든요. 정히 누가 보더라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제가 답변말씀을 드릴까요?

● 이충원 위원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하신 게 보게 되면은 이것을 갑자기 우리가 중간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받았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대충 얼마까지 들어가야, 예산심의를, 사정을 하려면 그게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필요해서 그냥 구두로는 안 되고 또 지금까지 금방 설계서를.....

● 이충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을 정식으로 거론합시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12일날 공문을 받았는데, 받으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공문 받으시고서 그 뒤에 견적서를 만들 어왔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이미 공문 받기 전에 견적서를 받았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문제죠.

● 총무과장 이기수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저희하고 사전협의 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위원님?

● 이충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광수

또 저 이기수과장님.

● 총무과장 이기수

예

● 위원장 김광수

지금 저 이충원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좀 심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런 얘기에요. 지금 내가.....

● 위원장 김광수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런 말씀이예요.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지 이것을 무슨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교과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교과교육 무슨 위원회 해서 있대요. 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그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관한 것, 옛날에 말하면 과외수업이죠. 학교 내에서 과외수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군 특기적성 이런 게 합해가지고 얼마이고 하니 21억 6천만원입니다, 대충. 내 머리로 대충 계산해 봐서 21억입니다.

아까도 손위원님 질의하는 데에 그게 나왔네요. 이게 사실은 학교별로 대체적으로 지원요구서가 올라와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원요구서가 올라와서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는고 하니 막대한 돈이건데요. 21억이나 되는 게. 또 교과면 교과별로 요구서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체육교육이면 체육교육과에서 체육교육협의회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좀 어제 요전에 그 방대하니까 못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시·군별로라도 그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주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만 주셨대. 그래서 내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중에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쪼개서 준 것마냥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이것 준 것에 보시면요, 이거 이거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주신 것 보면은, 이거 처음에 예상 못하셨나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해가지고 지금 2,300만원 플러스(+) 돼 왔어요. 먼저 저기보다. 어느 과장님이 취급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 교원지원과장 이주원

기회를 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각자는 얘기도 아니고, 각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300만원이 플러스(+)가 돼 왔는데 보니까 참석대상인원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거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할 것을 예상 못하고 먼저 본 예산에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운영위원장 560명만 교육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사회적인 변동이 되니까, 안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249명 전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2,300만원 여기다 더 플러스하신 게 아닌가.....

● 총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중등교육과 소관이 아니시고 학교운영과 소관인데요.....

● 이충원 위원

아, 언제 그리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교육의 문제인데.....

● 총무과장 이기수

구조조정 하면서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들한테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도 일선 현장에 나가서 교육에 참여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 인원수 계산할 적에 운영위원장만 했더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운영위원들 전체 다.....

● 이충원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본 예산을 책정해서 결정한 뒤에 이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죠?

● 총무과장 이기수

아니, 당초 예산에 다 넣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챙겼던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못챙겼죠?

● 총무과장 이기수

예. 저희 실무진들이 못챙겼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못챙긴 것 뿐이지 이게 여건이 변해서.....

● 총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아닙니다.

● 이충원 위원

6천명이 선거를 한다니까 이것을 넣은 것이 아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교육자치법 아직 개정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이 얘기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질문이 더 계십니까?

● 이충원 위원

글쎄 뭐 대충 했으니까 아까 요전에 김과장님, 질의한 데서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내가, 그것은 뭐 이의없으니까.....

● 위원장 김광수

다른 보충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광수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결과,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던 바,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새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

침과 아울러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손만재,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6명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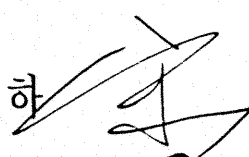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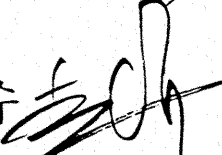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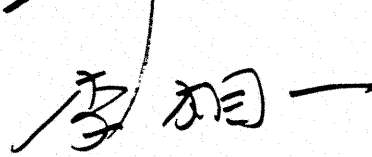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제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7. .

위원장	김광수	
간사	손만재	
위원	송진하	
위원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	이충원	



(별첨 1)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 10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6. 29 (화)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9. 7. 1 (목) 11: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최]  1.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 폐회	



(별첨 2)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충청북도교육청

## I. 기본방향

- 지방채 발행
-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편성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 계상

## II. 재원별 개요

(단위:천원)

재원별	사업명	예산액	비고
특별교부금	교장자격연수경비의 13건	7,649,098	
보조금	교실수업개선윤위한열린교육지원비의 21건	4,257,372	
재산수입	대가료	30,068	
자체재원	수수료 수입	23,750	
순세계잉여금	'98.순세계잉여금 조정	16,012	
국내차입금	재정용자특별자금 차입 능협중앙회 지방채발행	3,250,000 31,728,000	
합계		46,954,300	

### 3. 세출예산액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교육위원회비	299,712	0.0	294,292	0.0	5,420	0.0
급여관리	535,169,258	67.3	500,732,969	66.9	34,436,289	73.4
교육행정비	21,707,008	2.7	19,700,246	2.6	2,006,762	4.3
교육사업비	7,504,989	0.9	6,827,889	0.9	677,100	1.4
학 교 비	77,262,136	9.7	69,868,979	9.3	7,393,157	15.7
사학지원비	53,162,159	6.7	50,712,346	6.8	2,449,813	5.2
시 설 비	95,892,909	12.1	90,445,320	12.1	5,447,589	11.6
제지출경비	1,577,440	0.2	867,951	0.1	709,489	1.5
예 비 비	3,243,870	0.4	9,415,189	1.3	△6,171,319	△13.1
합 계	795,819,481	100.0	748,865,181	100.0	46,954,300	100.0

### Ⅲ. 예산액 규모

#### 1. 예산총액

(단위: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795,819,481	748,865,181	46,954,300	기정예산대비 6.3%증

#### 2. 세입예산액

(단위: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616,193,851	77.4	604,287,381	80.7	11,906,470	25.4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 담수입	4,182,897	0.5	4,182,897	0.6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 계부담수입	175,442,731	22.1	140,394,901	18.7	35,047,830	74.6
주민(기관등)부 담수입	2	0	2	0	0	-
합 계	795,819,481	100.0	748,865,181	100.0	46,954,300	100.0

# IV.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

기당예산액 748,865,181      수입예산액 795,819,481      총합 46,954,300

구분	세입		세출		예비비
	내역	금액	내역	계	
특별교부금	교정지원수준비	163,936	교정지원수준비	137,700	
	교육소득구분	14,326	교육소득구분	14,326	
	학교교육회계지원비	26,562	학교교육회계지원비	26,562	
	고교급식사업	2,569,000	고교급식사업	2,569,000	
	특기직선교역지원	1,630,359	특기직선교역지원	1,630,359	1,145,281
	학교운영지원수준비	373,500	학교운영지원수준비	373,500	302,400
	교과용도서발행연구회	2,000	교과용도서발행연구회(임신초)	2,000	2,000
	교과미달연구회	4,346	교과미달연구회	4,346	
	교과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지원	393,810	교과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지원	393,810	
	(보조금-특별교부금)	30,000	기반성	0	
	지자체교역지원	20,000	지자체교역지원(양양고)	20,000	
	과수교역지원	2,020,000	과수교역지원(수곡초,중원동,음성고)	1,410,000	1,410,000
	새마을교육지원	10,000	새마을교육지원(예산여고)	5,000	5,000
	시립학원교육환경개선비	391,259	시립학원교육환경개선비	391,259	175,559
	교실수업개선위원회교역지원	7,849,098	교실수업개선위원회교역지원	6,977,862	3,035,240
117,850	교실수업개선위원회교역지원	45,000	10,000	35,000	
		51,000	51,000		
		3,250	3,250		
		3,600	3,600		
		304,494	304,494		
중식지원비	304,494	중식지원비	304,494		
행정교육시범학교	5,000	행정교육시범학교(재원시범초)	5,000	5,000	
특수교육지원수업시범학교	10,000	특수교육지원수업시범학교(예산여고)	10,000	8,350	
교과교육연구회연구비	100,000	교과교육연구회연구비	100,000	100,000	
특수교육연구회	10,000	특수교육연구회(청주남동)	5,000	5,000	
학교운영지원비	111,000	학교운영지원비	111,000		
문화예술지원비	6,000	문화예술지원비	6,000		
지역행정정책지원사업	20,000	지역행정정책지원사업	20,000		
영어보조강원	60,000	영어보조강원	60,000	60,000	
체육계학교육	14,182	체육계학교육	14,182		
특정교육인력지원	237,922	특정교육인력지원	237,922	175,449	
직업교육비용	3,360,574	직업교육비용	3,360,574		
국립학원충당비(공시범학교지원)	410	국립학원충당비(충남1명)	410		
(10,000-8,500)	-1,500	기반성	0		
충청영어교지원(123,510-119,488)	-4,022	기반성	0		
학교인성교육(610,150-205,707)	-404,443	기반성	0		
교육진흥위원회(58,032-125,105)	67,073	기반성	0		
신용협회지원(330,215-588,047)	257,832	기반성	0		
생활기록부작성지원(충북영고)	4,500	기반성	0		
사회복지지원비	10,500	기반성	0		
교육과정통합운영시범학교지원	-30,000		0		
(보조금-특별교부금)	4,257,372		4,337,432	333,099	
소계	34,978,000	교원양성지원수업시범사업	34,978,000		
교원양성지원수업	23,750	지역교육청 지원비	2,876,311	1,346,515	
1990년도 순세계잉여금조장	16,012	지역교육청 지원비	2,456,786	2,456,786	
단양,홍천,괴곡,대기포	30,068	지역교육청 지원비	152,713	152,713	
소계	35,047,830		41,810,325	37,854,311	
세입합계	46,954,300	0	53,125,619	45,801,266	7,324,353
지자체					
수요수입					
순세계잉여금					
대기포					
기당예산액					
세입합계	46,954,300	0	53,125,619	45,801,266	7,324,353
기당예산액					
세출합계					
기당예산액					

기당예산액	9,415,189
예비비	3,243,870

## V. 세출예산 주요 투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명예퇴직수당 및 부담금	34,978,000	정년 및 명예퇴직자 1,506명 총소요액 114,800,000 확보액 79,822,000 부족액(금회확보) 34,978,000
고교 급식시설	2,569,000	고등학교 급식확대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1,630,359	초(254교) 838,125 중(113교) 307,156 고(73교) 475,486 국립(4교) 9,592
과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 재정지원	1,410,000	본교폐지 120,000천원×3교 360,000 본교장폐지 60,000천원×16교 960,000 본교장개편 10,000천원×9교 90,000
직업교육확충	3,360,574	전산기계고 기자재구입비 1,100,000 공고생장학금지원(1,471명) 665,377 공동실습소기자재확충 (청주기공, 충북공고, 청주농고) 860,216 멀티미디어실설치(전산기고, 중평상고) 300,000 교육과정실험학교지원(청주기공) 150,000 노후기자재대체비(실고33교) 284,981
학교교육계획서우수학교지원	373,500	초(43교) 207,900 중(18교) 99,000 고(16교) 66,600
교과교육연구회연구비지원	493,810	교육부공모 교과교육연구회 지원(103팀)
결식아동중식지원비	304,494	결식아동중식지원(1,094명)
컴퓨터교육 인력양성 지원	237,922	본청1, 초34명, 중11명, 고14명, 계60명
교장자격연수경비	137,700	교장자격연수경비 (초110명, 중100명)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111,000	훈련비 2,500천원×44교 110,000 지도점검여비 1,000
교실수업개선을위한 열린교육 지원	102,850	연구시범학교(수곡초, 중평중, 음성고)45,000 연구시범단지(청원교육청) 51,000 학부모연수 및 홍보 3,250 교원 및 전문직연수(24명) 3,600
초등학교 영어보조원 임용	60,000	40명×1,500천원 60,000
교단선진화(3교)	174,000	'99. 9. 1개교 (경덕초, 죽천초, 남평초)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컴퓨터S/W보급	730,201	초등학교 256,270
		중학교 197,120
		고등학교 178,990
		특수학교 11,200
		지역교육청 38,290
		본청및직속기관 48,331
화훼온실 설치	301,224	충주농고 1동
예산업무전산화	110,000	DB프로그램(오라클) 11개교육청
일반직명예퇴직수당	330,000	명예퇴직자 33명
멀티미디어실 설치	56,352	예성여고 1실
농업계고 지원	60,000	4,000천원×15실(6교) 60,000
학교체육활동지원	60,000	전국대회입상교지원
		1위 2,000→3,000(20교) 20,000
		2위 1,500→2,500(20교) 20,000
3위 1,000→2,000(20교) 20,000		
공폐합학교교육여건개선비	500,000	본교폐지 30,000천원×3교 90,000
		분교장폐지 20,000천원×16교 320,000
		합교장격하 10,000천원×9교 90,000
의료보험 부담금	450,510	'98년도미납분 450,510
지방채 이자	709,489	지방채 이자
영동고등학교 사유지매입 및 교실증축	338,963	토지 199평, 건물 76.19평 매입비 161,736
		교실증축 (3실) 177,227
서원학원교육환경개선	391,259	운호중(화장실개조1동,상수도관교체250m, 지붕방수 1,610m <sup>2</sup> ) 175,559
		운호고(화장실보수1식) 25,800
		청주여상(화장실개조2동,배수로195m) 189,900
영동농공고 특별교실증축	147,988	특별교실증축 2.5실
진천농공고 복싱경기장신축	50,000	복싱경기장 40평
세광고등학교 지붕방수의 1건	101,240	지붕방수(8실), 오수정화조(1식)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606,300	로울러스케이트장(44.48m×100.9m×8m)
체조경기장 신축	383,000	체조경기장(20m×50m), 조립식철골
괴산중학교 천정설치의 2건	151,145	천정설치(15.5실), 중간창교체(22.5실), 내부 도색(22.5실)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주성중학교 강당보수	250,000	강당보수
제천 의림초등학교 학생화장실개축	177,362	학생화장실개축(2실)
보은 수한초 교실증축	118,280	교실증축(2실)
옥천 청성초 교실증축	118,280	교실증축(2실)
보은중학교 급식소 시설	80,000	급식소개조 및 내부시설 (270m')
영동중학교 계단실증축	88,962	계단실증축 (1.5실)
진천 성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 개축	99,250	병설유치원 교실개축 (1.5실)
괴산 삼보초등학교 화장실증축외 1건	98,100	정문설치(1식) 16,800 학생화장실증축(1식) 81,300
부강중학교 직원화장실 증축	53,500	직원화장실 증축(1실)
기타各科 요구사업	621,005	
예비비	△6,171,319	
합 계	46,954,300	